

복지요결

사회사업의 핵심 원리와 방법을 밝히는 사회사업 원론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본문

머리말	3
사람과 사회	13
사회사업 개념	26
사회사업 가치	45
사회사업 이상	50
사회사업 철학	55
사회사업 주안점	61
사회사업 방법	81
맺음말	98
적용	231

부록

사회사업가	100
복지관 사회사업	113
아동 사회사업	126
시설 사회사업	144
사례관리 사회사업	183
사회사업 실습지도	202
사회사업 조사	206
사회사업 기획	212
사회사업 기록	218
사회사업 평가	221

머리말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습니다.

복지요결은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본

1) 근본 있는 사회사업가이고 싶습니다.

사회사업이 어떤 일이며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의미도 모르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복지의 바탕이 무엇인지, 원리도 모른 채 임기응변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상과 철학도 없이 달음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사회사업 바르게 했다 잘했다 할 것인지, 기준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 남들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 하지는 못할 노릇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마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본을 알고 근본을 좇아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고 싶습니다. 근본으로써 성찰하며 근본으로써 다잡아 한결같이 정도로 행하고 싶습니다.

2) 근본이 없으면

근본을 밝히지 않고도 사회사업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근본이 없거나 근본을 좇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①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고도 사람을 사람답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돕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짐승을 돌보는 일과 무엇이 다르냐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② 사회사업 개념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찌 사회사업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개념 없는 일이라고 한들 어찌겠습니까?

개념 없는 일이라는 말은 혹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사업한다고 말할 수 없음, 사회사업가로서 이보다 민망한 일이 있을까요?

③ 이상과 철학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디로 어떻게 갈까요?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러고도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까요?

④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복지의 바탕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에 주력할까요?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행할까요?

미봉 땀질 같은 임시방편이나 뒤치다꺼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노릇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관참을까요?

⑤ 정체성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찌 사회사업가답게 일할 수 있겠으며 제구실하고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린들 어찌겠습니까?

외인의 오해 비판 조롱 친시 따위는 작은 문제입니다. 스스로 확신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모른다는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본도 없이 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 그렇게 하는 까닭, 자기 실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난데없고 정처 없어 끝내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3) 전공과 근본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

몰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해 봐야 알 수 있거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 정부의 지침 예산 평가, 기관의 형편... 이런 현실에서 근본 이야기는 한담쯤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할 근본이 없어도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고 근본이 무슨 상관이며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근본을 알고 근본을 좇아 행함이 좋겠습니다.

전공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했는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도 없이 행함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연구 방법

1) 순서

먼저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그로써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구하여 그로부터 사회사업 방법을 도출합니다.

사회사업 방법은 다변수함수 $f(x_1, x_2, \dots, x_n)$ 입니다.

사회사업 연구는 사회사업 방법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각 변수의 값을 밝혀 그로써 이 함수값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회사업의 근본, 자기 실천의 근거를 밝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방법을 좌우하는 변수는 무엇이며 그 변수를 좌우하는 변수는 또 무엇인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사회사업가가 잘 다룰 수 있는 변수로 한정하여 헤아려 보건대

사회사업 방법은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따라 정해지고,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은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다단함수입니다.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 a와 b의 값을 정하고,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의 뜻을 c, d, e, f, g, h로 각각 정의합니다.

② a, b와 c, d, e, f, g의 함수로서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x_1, x_2, x_3, x_4, x_5 의 값을 각각 구합니다.

$$x_1=f(a,b,c); x_2=f(a,b,d); x_3=f(a,b,e); x_4=f(a,b,f); x_5=f(a,b,g)$$

③ x_1, x_2, x_3, x_4, x_5 와 h의 함수로서 방법 y의 값을 구합니다.

$$y=f(x_1, x_2, x_3, x_4, x_5, h)$$

복지요결은 이런 순서로 사회사업 원리와 방법을 풀어냅니다.

2) 열쇠 말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연구의 열쇠 말로 삼습니다. 사회사업 온갖 이론과 실무를 대개 이로써 풀어냅니다.

열쇠 말은 사회사업 온갖 이론과 실무 이야기를 풀어내는 실마리이고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벼리입니다.

열쇠 말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이야기들 간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복지요결은 이런 열쇠 말을 사회사업의 핵심 요소에서 찾습니다.

요소 :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국어사전 농사에서 씨앗과 땅이 그러하듯 사람과 사회는 사회사업의 성립과 효력 발생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본 조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과 사회를 사회사업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회가 사회사업에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로 구체화합니다. 이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사회사업 연구의 열쇠 말로 삼습니다.

복지요결의 온갖 주제가 이로써 일관되게 잘 풀립니다.

3) 시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이야기합니다.

① 이론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어느 것이나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이야기하는데 주제에 따라 묘사하는 면이나 표현하는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용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컨대 사례관리 지원자, 주간활동 지원센터, 평생학습 지원 사업 따위가 그러합니다.

② 실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상상하면서 그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실무의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됩니다.

예컨대 평생학습, 캠프, 여행, 놀이나 운동, 동아리 활동, 반찬 사업, 김장 사업, 경로식당 운영, 독서 모임, 저자와의 대화, 지역 탐방, 진로 탐색, 마을 극장, 성탄절 행사, 송구영신 행사, 동요 대회, 그림책 만들기, 바자회나 베품시장, 공연, 축제 따위의 복지관 실무가 모두 이러하고 입주자의 취미활동 지원, 구직과 직장생활 지원, 학교생활 평생학습 신앙생활 지원, 식생활 청소 세탁 도배 미용 지원, 물품 관리 지원, 생일잔치 지원, 쇼핑 여행 산책 지원, 공연 영화 전시회 관람 지원, 진료 지원, 주거 지원, 사람 구실 지원 따위의 시설 실무가 모두 이러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복지사업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사회사업 온갖 이론과 실무가 대개 이로써 좌우됩니다.

4) 실용성

사회사업가로서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 실무에 맞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합니다.

5) 정합성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이 가지런히 들어맞게 합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앞말과 뒷말이 그러하고 이론과 실무가 그러하게 합니다.

※ 용어의 정합성, 정명

① 명명 : 가리키는 대상의 실제적 본질 또는 핵심 속성으로써 적확하게 명명합니다.

② 정의 : 이름을 문자 그대로 또는 실제 쓰임 그대로 똑떨어지게 정의합니다.

대상과 이름과 개념이 정합하게 하는 겁니다. 핵심 용어만큼은 이렇게 명명 정의하고 그 이름을 일관되게 그 개념으로 쓰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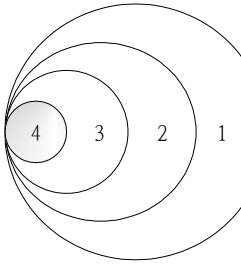
6) 주관성

사회사업을 다 볼 수 없고 그 본질이나 실상을 그대로 그려 낼 수도 없습니다. 주관에 따라 선택 해석 설명할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복지인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마땅하다거나 평범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 선택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주관을 충실히 담아내려 합니다. 다만, 한계를 의식하고 여지를 둡니다.

3. 범위



- 영역1 :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
- 영역2 : 복지기관에서 하는 일
- 영역3 :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
- 영역4 :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직접 상대하는 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직접 대하여 돕는 일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행정, 상담 치료, 보육 돌봄 케어, 후원 봉사, 긴급구호, 위기개입, 경제적 지원, 수익사업, 사회행동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복지기관에서 하는 일의 심층팔구는 다른 이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4. 줄거리

1) 사람과 사회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①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② 사회사업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③ 사회사업 이상은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입니다.

④ 사회사업 철학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복지가 사회 속에 흐르게 하고, 복지 바탕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⑤ 사회사업 주안점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관계입니다.

3) 사회사업 방법

사회사업 방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사람과 사회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싶습니다.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고 싶습니다.

어찌하거나 어떠한가 사람답다고 하며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사람다움

1)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따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2)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따로 되도록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소외되거나 고립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2. 사회다움

1)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동물 사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므로 약자도 되도록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일반 수단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약자일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이러므로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샅터에서 함께 하게 주선합니다. 여느 사람의 일반 생활권에서 분리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2)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붙이고 살 수 있습니다. 이웃과 인정은 사람 사는 사회의 생명소이고 인간적 사람살이의 본체입니다.

이러므로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합니다.

부연

1. 사회사업학의 출발점

사회사업학은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사회사업은 ‘사람과 사회’가 어찌하거나 어떠한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학은 사람과 사회의 본질에 관한 물음 곧 ‘어찌하거나 어떠한야 사람답다고 하며 사람 사는 사회 같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요결도 그러합니다.

사람과 사회의 본질이나 본연 또는 바람직한 속성을 ‘사람다움 사회다움’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데서 비롯합니다.

사람답고 사람 사는 사회 같다고 할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하기에 달린 속성, 사회사업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속성을 찾아 실무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로써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2. 자주

사전에서는 자주를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 자기주장대로 함’이라고 합니다.

사회사업은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많고, 당사자의 주장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므로 사회사업에서는 자주를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됨’이라고 합니다. 주인 노릇 한다는 말은 주관한다, 자기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기주장대로 하지 못해도 주인 노릇 하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주인 된다는 말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주인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 노릇 하지 못해도 주인 되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1) 신앙과 자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된다, 이는 신앙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이라 함은 신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당사자의 지위 역할 권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2) 자립과 자주

자립은 ‘스스로 섬’입니다. 사전에서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섬’이라고 풀이합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자립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으로써 자립케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사업은 자립보다 서로 기대어 사는 인간적 사람살이를 더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립 여부로써 사람답다거나 사람답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자주는 사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자립은 일부 사업에서 희망하는 ‘목표’이고 자주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3. 소외와 고립

1)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와 고립

소외와 고립 모두 사람들과 멀어지는 현상인데, 소외는 타자에 의해 당하는 것이고 고립은 스스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 주선하지 않으면, 복지를 이루는 데 함께하는 커녕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지도 않을 공산이 큼니다.

이런 사람을 따로 떼어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둘레 사람마저 멀어지고 심하면 무심해집니다. 당사자는 더 소외 고립되고 심하면 잊혀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도 경계할 일입니다.

이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일로 둘레 사람과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게 주선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주선하고,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주선합니다.

그럴 만한 일이고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당사자나 둘레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냥 따로 돕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2) 자기 복지를 이루는 일에서 주인 되지 못하는 소외

이 소외는 주체와 객체의 지위가 뒤집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주체인 당사자가 객체인 복지사업에 또는 사회사업가에게 종속 통제 되는 현상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당사자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4. 어른다움

당사자가 어른이면, 사람다움뿐 아니라 어른다움까지 생각합니다.

어른다움은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해 주시거나 베푸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보살펴 주실 때, 어른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 이렇게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실 때 어른다워 보입니다.

이러므로 어른은

1) 당신의 복지를 이루는 데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게 합니다.

2) 둘레 사람에게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게 합니다. 그런 일을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주선하고, 시설에서는 생활과업으로 지원하고, 사례관리 사업에서는 사례로 관리하시게 돕습니다.

기력이 없거나 의식이 흐려도 이렇게 돕고, 장애나 치매증이 심해도 이렇게 돕습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 역할과 구실과 노릇

국어사전에 ‘역할’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구실’, ‘소임’, ‘할 일’을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 대신 ‘구실’이라고 써 왔고 아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간이나 다자간에 나누어 맡은 일을 가리킬 때는 ‘역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컨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서 역할이 그러합니다.

구실과 노릇은 유의어인데, 책임에 가까운 일은 구실이라고 하고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노릇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어른 구실 어른 노릇’에서 구실과 노릇을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5. 약자

1)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회에서 여느 사람이나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이용하는 데, 그 사회에 참여 기여하는 데, 복지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쉬운 사람입니다.

예컨대 소득, 나이, 직업, 출신지나 사는 곳, 성이나 성적 지향, 인종이나 민족, 종교, 지적 기능이나 신체 상태 따위로 인해, 이런 것을 이유로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곤 합니다.

사회사업 주 대상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라고 다 사회사업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우선 또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이 다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복지요결에서 ‘약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약자가 그러합니다.

2) 상황적 약자

상황적 약자는 어떤 상황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상황적 약자라고 다 사회사업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약하다고 다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 대상자로서 약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상황

① 어떤 일을 하는 데 배경이 되는 조건

‘사안과 상황에 따라’에서 상황은 주로 조건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재산, 나이, 성, 몸의 상태 따위의 당사자 쪽 조건이나 편의시설, 인식, 제도, 관습, 지리, 기후 따위의 환경 쪽 조건을 가리킵니다.

②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하는 때

‘상황적 약자’에서 상황은 때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갈 때가 그러합니다.

3) 약자라 함은 어떤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말이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사람 자체를 약자로 보지 않습니다. 항시 약자인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한 집단의 특성으로써 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으로써 그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단이라도 사람 나뉘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 나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돕습니다. 온갖 상황에 개입 보호 지도 관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 삼갑니다.

4) 사회사업이 약자만 돕는가?

사회적 약자만 돕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사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 약자만 돕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사업 대상자로서 약자는 상황적 약자이지만, 사회사업 대상자가 다 약자는 아닙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이 약자만 돕는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든 상황적 약자든, 약자라고 다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약자를 돕는 일은 사회사업가에게 정명(定命) 같은 일입니다.

5) 약자와 사회사업가

약자와 가까워야 사회사업 촉촉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약자와 멀어지면 헛헛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그렇습니다.

승진할수록 약자와 멀어지기 쉽습니다.

어떡하든 승진을 피하고 부득이 승진하더라도 직접 돕는 일을 아주 그만두지는 않음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얼마쯤 봉사하고 일선으로 돌아감이 좋습니다.

팀장·과장, 부장·국장, 기관장 따위의 자리나 직함이, 약자에게서 멀어지는 계기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사회사업가라는 정체성을 흐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에게 일선 현장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이며 ‘사회사업가’보다 더 가슴 뛰는 직함이 무엇일까요?

은퇴할 때 ‘사회사업가 아무개 선생님’으로 불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중간 관리자나 기관장이 되었더라도 얼마간이나마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회사업가’로 은퇴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6) 약자도 살 만한 사회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고 약자라도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해 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도울 때 되도록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회가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거나 수정 보완하게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다움에서 약자도 살 만해야 한다는 표현을 내려놓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7) 약자 전용 수단, 약자 대상 봉사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사회가 약자를 외면 배제하기 쉽고 약자가 사회로부터 분리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전용 수단으로써 돕기를 삼갑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복지관이나 시설에 와서 돕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될지 모릅니다. 넘비 현상을 방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리므로 제 마당 제 삶터 밖에서의 봉사를 동원하거나 수용하는 일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8) 약자라는 용어의 불편함

사회에서 여느 사람이나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론에서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딱히 대체할 만한 용어도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꺼림칙합니다.

이 용어를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석연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6. 공생

어울려 산다,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하는 사람살이를 두루 일컫는 말입니다.

복지요결에서는 주로 ‘더불어 산다’로 총칭하는 편이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쓰기도 합니다.

1) 어울려 산다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는 정도의 공생입니다.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복지를 이루는 일로,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게 하려 합니다.

2) 함께 산다

분리 배제 차별하지 않는 공생입니다.

사회사업은 약자를 일반 생활권에서 분리하지 않고 일반 수단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사회이게 하려 합니다.

3) 더불어 산다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는 수준의 공생입니다.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복지를 이루는 일로, 지역사회 사람들이 약자와 더불어 살고 서로 더불어 살게 하려 합니다.

※ 함께하다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국어사전

예문 : 어려움을 함께하다. 고락을 함께하다. 시간을 함께하다. 자리를 함께하다.

사회사업에서는 주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함께하게 합니다.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다’를 ‘함께하다’로 총칭하기도 합니다. 돕거나 나눔으로써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이웃과 인정

1) 이웃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넓게는 지역 주민 또는 동네 사람이나 마을 사람이고, 좁게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 관계 또는 이웃이 있다는 말은 이런 사람과의 연결 또는 이런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인정

인정은 ‘사람들이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는 정’입니다.

인정의 소통 또는 인정이 있다는 말은 이런 정이 사람 사이에 흐르는 모습, 실제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은 이웃과 인정을 살려 복지를 이루려 하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 이웃과 인정을 살리려 합니다.

이웃 인정 약해졌다고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이웃 인정 더욱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이웃 인정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기를 삼갑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살리다

회복 개발, 유지 활용, 개선 강화

좋은 것에 대한 사회사업 행위는 대개 이 여섯 가지 동사에 해당하는데, 이런 긍정적 조치를 ‘살리다’로 총칭하곤 합니다.

예컨대 이웃과 인정을 살린다, 자연력을 살린다, 자주성과 공생성을 살린다, 복지 바탕을 살린다, 강점을 살린다, 관계를 살린다고 합니다.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 개념은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 또는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다는 점,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는다는 점, 이것이 사회사업의 핵심 속성입니다.

1) 당사자와 지역사회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다만 다른 일도 흔히 당사자가 이루게 하니 ‘당사자’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고 하기에 부족합니다.

지역사회도 함께하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2) 복지와 공생

복지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회사업합니다. 다만 다른 일도 복지를 이루니 ‘복지’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고 하기에 부족합니다.

더불어 살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복지에서 비롯하고 지역사회와 공생으로 사회사업다워집니다.

부연

1.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은 아직은 당 위 차원의 사회사업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 연구나 논의의 대상은 주로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입니다.

존재 차원의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일’ 또는 ‘복지 당사자와 지역 사회를 직접 대하여 돕는 일’쯤 됩니다.

복지요결에도 이런 일을 가리키는 ‘사회사업’이 많습니다.

예컨대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하기에 달린 속성’, ‘사회사업 개념 정의’에서 사회사업이 그러하고,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방법’, ‘복지관 사회사업’, ‘시설 사회사업’, ‘사회사업 기획 기록 평가’에서 사회사업이 그러합니다.

2. 개념, 정의, 개념 정의

1) 개념

- ① 사회사업 개념 :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 또는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
- ② 사회사업의 개념 :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
- ③ 사회사업에 대한 개념 :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

2) 정의

- ① 사회사업 정의, 사회사업에 대한 정의 :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을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
- ② 사회사업의 정의 :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 또는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을 밝혀 규정함

3) 개념 정의

- ① 사회사업 개념 정의 :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을 밝혀 규정함
- ② 사회사업 개념을 정의한다, 사회사업의 개념을 정의한다, 사회사업에 대해 정의한다, 사회사업을 정의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4) 사회사업을 정의하는 방법

① 원칙과 한계

사회사업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사회사업 아닌 다른 일과 구별되게 해야 하고 사회사업을 두루 아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고 사회사업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첫째, 다른 일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도 복지에 기여합니다. 대상도 소재도 방법도 사회사업만 그렇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회사업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기에는 그 실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천차만별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만 사회사업이라거나 다른 건 사회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 대안

첫째, 사회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도 사회사업‘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게, 특히 사회사업이 그렇다거나 그래야 사회사업답다고 할 만한 속성을 밝혀, 그로써 대체로 다른 일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사회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사회사업은 대개 그럴 수 있다고 할 만하게, 그로써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합니다.

5) 사회사업 개념 정의의 근본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그로써 사회사업 개념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을 밝힘이 먼저 할 바 근본이고, 사회사업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나중에 할 바 말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람과 사회에 관한 생각 곧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을 ‘근본 관점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3. 사회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사업의 수식어 ‘사회’가 의미하는 바를 밝혀 사회사업이라는 말의 뜻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리므로 사회 관점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와 사업의 합성 명사에 대한 문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수식어 ‘사회’가 사업의 방법과 목표를 특징짓습니다.

1) 사회적 방법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2) 사회적 목표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일반 수단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 합성명사를 정의하는 방법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① 대등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를 각각 풀이하고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앞 뒤의 명사를 그냥 그대로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예컨대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주야는 낮과 밤으로 정의합니다.

② 융합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의 원래 의미를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춘추는 나이로, 갈등은 모순과 대립 따위로 정의합니다.

③ 수식 합성어, 종속 합성어

앞 명사는 수식어이고 뒤 명사가 본체입니다.

앞 명사에 조사 접미사 등의 살을 붙여 관형어를 만든 다음, 그 관형어의 뜻을 구체화하여 그로써 뒤 명사의 속성을 규정하거나 의미를 한정합니다.

예컨대 인권은 ‘사람’에 살을 붙여서 예컨대 ‘사람다운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 따위로 정의하고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사회사업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 명사 ‘사회’에 접미사 ‘적’을 붙여서 ‘사회적 사업’이라고 하고 ‘사회적’의 뜻을 풀어 뒤 명사 ‘사업’을 수식합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 사업입니다. →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고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4. 기타 개념

1) 생태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약자와 일반 수단 쪽 사람들 사이, 사람 사이의 생태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사이 좋게 하는 일입니다.

2)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은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3) 가령 한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돕는다는 말이 불편하면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해 봅니다.

①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주선하는 일입니다.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것을 거드는 일입니다.

②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데 함께하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4) 자비량 사회사업

생활비와 활동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어떤 곳이든 사회사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사회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부 사회복지사는 어떨까요?

동네의 이런저런 공간과 사람들이, 동네에서 보고 듣는 일들이, 사회사업 의미를 띠게 되지 않을까요? 두루 다니며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고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주부 사회복지사 한 명만 있어도 그 동네는 정붙이고 살 만하지 않을까요?

카페 책방 마을도서관 꽃집 미용실 사진관 사회복지사는 어떨까요?

참조 : 복지경영 '벤처 사회복지사 ~ 자비량 사회사업가'

5. 당사자

1) 개념

당사자는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받을 사람입니다.

복지 당사자라고 함이 적확하지만 여기서는 당사자로 약칭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2) 함의

당사자라고 하면

① 당사자 본인은, 자기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권리 의식을 가지기 쉽고 실제로 그럴 공산이 커집니다. 당사자라고 하면서 사회사업가에게 내맡기고 그저 해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만 하려 들지는 않을 겁니다.

②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도움 공산이 커집니다. 당사자라고 하면서 대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대신 선택 결정하거나 계획 준비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기를 삼가게 됩니다.

※ 대상자

대상자는 어떤 사업으로 도움 사람 또는 돕는 사람입니다.

대상자라고 하면

본인이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공산이 커집니다. 사회사업은 대상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공산이 커집니다.

이용자라고 해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대상자나 이용자라는 용어는 꼭 써야 할 자리를 가려서 신중히 씁니다.

6. 관념상의 용어와 실재하는 당사자

당사자, 아동 청소년 노인, 남자 여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 노숙인 수급자 장애인, 입주자, 지역 주민…

모두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관념상의 용어이고 집합 명사인데,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를 이로써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용어는 이렇게 쓰기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를 암시하거나 낙인 효과가 있는 용어 또는 그런 속성으로써 사람을 한정 수식하는 용어, 예컨대 노숙인 수급자 장애인이 그런 편입니다.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를 이런 용어으로써 지칭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인 양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 같고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현재 이러저러하다고 서술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홍길동 씨는 노숙인이다. 수급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홍길동 씨는 현재 노숙하고 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홍길동은 지적 장애인이다. 자폐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홍길동은 지적 장애가 있다. 지적 기능이 여느 아이와 다르다. 자폐성 장애가 있다. 자폐성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 지역사회

1) 당사자의 지역사회

① 사람

당사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친척 지인 친구 동료 이웃이 그러하고 일반 수단 쪽의 사람도 더러 그러합니다. 둘레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다고 할 때 지역사회는 주로 이런 사람 곧 당사자의 지역사회를 가리킵니다.

② 공간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주로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생활권이라고도 합니다.

2) 기관의 지역사회

① 공간

기관이 속한 행정 구역 또는 조례나 정관 따위로 정한 기관의 사업 구역입니다. 그냥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동네나 마을이라고 부를 직한 곳도 있습니다.

② 사람

기관과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 밖의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예컨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는 주로 기관 외부의 장소나 일반 수단을 가리킵니다.

8. 복지

복된 상태 또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배고프지 않거나 배부른 상태, 갈증이 없거나 화목한 상태, 우울하지 않거나 즐거운 상태가 복지일 수 있고,

도시락이나 반찬, 친구나 이웃, 주거나 일자리가 복지일 수 있고,

식사 요리, 공부 놀이, 다과 대화,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생일잔치 집들이, 데이트, 여행 견학 관람, 운동 산책, 장보기, 진료 받기, 세탁 청소 목욕 미용, 집수리 도배, 사람 구실이 복지일 수 있습니다.

복지를 이룬다는 말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을 얻게 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 약칭으로서의 복지

복지사업이나 사회사업 또는 복지 서비스, 복지 제도, 복지 정책 따위를 그냥 복지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예컨대 ‘복지하는 사람’에서 복지는 복지사업이나 사회사업을 가리키고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에서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제도나 정책을 가리킵니다.

9. 욕구, 필요, 행복

1) 욕구

사전에서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에 이르고자 바라는 일도 내포하는 개념일 겁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얻거나 하거나 이르고자 바라는 그 ‘무엇, 무슨 일, 어떤 상태’ 자체를 욕구라고 합니다.

2) 욕구와 필요

욕구는 바라는 것이고 필요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다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것을 다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욕구와 필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론에서는, 바라는 것과 요구되는 것을 욕구로 총칭하기도 합니다.

3) 욕구와 복지

① 욕구는 행위성이 있는 명사이고 복지는 행위성이 없는 명사입니다. ‘욕구하다’라는 동사는 있지만 ‘복지하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② 바라는 그 ‘무엇, 무슨 일, 어떤 상태’를 욕구라고 하면, 욕구와 복지는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것이 복된 것인가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③ 복지는 욕구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4) 행복과 복지

사전에서는 복지를 ‘행복한 삶’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회사업으로 이루려는 복지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행복한 수준이 아니어도 좋은 복지, 행복과 무관하게 이루고자 하는 복지, 행복을 초월하는 복지도 있습니다. 참조 : 복지 [야성](#) ‘하필 행복?’

복지가 ‘행복한 삶’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면 사회사업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10. 복지사업

복지사업은 복지를 위한 사업, 복지를 이루어 주거나 이루게 돕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그냥 ‘사업’으로 약칭하는데, 복지를 이루어 주는 일을 가리킬 때는 ‘복지사업’이라고 밝혀 씁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와 대비할 때 ‘복지사업’은 복지를 이루어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1) 당사자의 일과 복지사업

예컨대 취미활동 여행 나들이 놀이 요리 평생학습 진로탐색 청소 세탁 목욕 사례관리 반찬마실...

이런 일은 당사자의 일입니다.

이런 일 자체를 복지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사업은 이런 일을 이루어 주거나 이루게 돕는 사업입니다.

2) 사회사업과 복지사업

사회사업은 다 복지사업인데, 여느 복지사업과 구별되는 속성 곧 사회사업다운 방법과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이로써 사회사업을 여느 복지사업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1. 자원봉사와 사회사업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돕는 일이라는 뜻이지만 보통은 ‘자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돕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흔히 보수의 유무로써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를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돕는 행위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수의 유무로써 돕는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한이나 책임, 양성 과정이나 자격 제도, 이런 것도 돕는 행위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기술, 분야나 소재, 돕는 시간이나 일의 양, 이런 것으로도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본질적 차이는 돕는 행위의 방법과 목표에 있습니다.

1) 방법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2) 목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일반 수단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사회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와 본질상 다르다 할 게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은 사회사업다워야 합니다.

12.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 또는 ‘사회가 이루는 복지’인데, 주로 후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약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1) 사회의 복지

사회의 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치 교육 의료 문학 방송 건설 농사 상업 따위의 온갖 일이 대개 사회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사회사업은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2) 사회가 이루는 복지

주로 사회 분야의 공조직이 이루는 (개인들의) 복지를 가리킵니다. 사회사업은 사회가 복지를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3) 사회복지사업의 약칭

① 문자적 정의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사회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사회사업뿐 아니라 사회의 온갖 사업이 대개 그러합니다.

② 조작적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범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개 사회사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로 약칭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회복지한다’는 말에서 사회복지는 이런 사업을 가리킵니다.

4)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① 실체

사회사업은 사업이고 사회복지지는 복지입니다.

사업은 그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하는 일’이고,

복지지는 그 목표나 결과로서 ‘되는 것’ 곧 사업의 대상자가 얻게 되는 것이나 하게 되는 일이나 이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사업은 음식을 나누게 주선하거나 식사를 지원하는 일이고, 복지는 음식이나 식사나 배부름입니다.

② 비교

사회사업은 협의의 개념이고 사회복지지는 광의의 개념이다?

무엇에 관한 개념이라는 말일까요? 아무튼 이는 음식을 나누게 주선하는 일은 협의의 개념이고 음식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사회사업은 미시적이고 사회복지지는 거시적이다? 이는 식사를 지원하는 일은 미시적이고 식사나 배부름은 거시적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작업과 작품을 크기로 비교할 수 없듯 사업과 복지가 그러하고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도 그러합니다.

③ 관계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관계가 다른 일과 사회복지의 관계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대개 사회의 복지나 누군가의 복지에 기여하는데...

사회 복지에 사회사업이 다른 일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들의 복지에 복지기관이 하는 일이 다른 기관이 하는 일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가가 경찰 청소부 농부 시인보다 더 기여한다거나 복지관이 편의점 식당 커피숍 호프집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3. 사회적 복지와 비사회적 복지

1) 사회적 복지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가운데 주로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사회적 복지는 사회 속에서 이루는 복지,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지역사회 일반 수단, 그 속에서 이루는 복지, 그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2) 비사회적 복지

복지시설에서 또는 전용 수단이나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이루어 주는 복지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사회적 복지라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사안 상황이 있습니다. 비사회적 복지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사회적 복지를 위주로 하다 보면 사회적 복지를 해치기 쉬우므로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14.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1) 개념

① 소극적 복지

나쁘지 않은 상태(문제가 해소 완화된 상태) 또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② 적극적 복지

(나쁘지 않은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2) 사업 (복지사업의 약칭)

① 소극적 사업

소극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문제를 다루되 문제와 직접 상관있어 보이는 사업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상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낙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약자 노릇, 환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굳어지거나 커지기도 합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습니다.

② 적극적 사업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별이는 사업, 또는 문제를 다루는데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업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상을 좋게 합니다.

문제를 예방 억지,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합니다. 문제를 감당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해 줍니다. 소극적 사업 같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문제도 적극적 사업으로써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15. 사회사업의 본질

1) 사회사업이 줄어듭니다.

사회정책과 시장이 가져가고 다른 직종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인공지능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 반려동물로 대체하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사업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끝까지 남을 사회사업의 그루터기, 사회사업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2) 사회사업이 늘어납니다.

사회사업이 다변화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융합한다거나 다양한 영역으로 스며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을 더욱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핵심 속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과 융합해도 변할 수 없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도 놓을 수 없는 사회사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무와 열매, 샘과 물이 그러하듯 공생이 근본이고 복지는 말단입니다.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 근본이고 복지를 이룬은 말단이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야말로 끝까지 남을 사회사업의 그루터기이고 뿌리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사회사업의 본질입니다.

사회사업은 한마디로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 가치

사회사업 가치는 사회사업에서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속성입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1. 당사자의 자주성

당사자가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속성입니다.

지금 이 복지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복지를 이루는 데도 유용합니다. 사람다움의 핵심 속성이고 당사자의 삶을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이니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자주성을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2. 지역사회 공생성

지역사회 사람들이 약자와 더불어 살고 서로 더불어 사는 속성입니다.

이 사람의 복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이루는 데도 유용합니다. 사회다움의 핵심 속성이고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이니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 공생성을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사회사업 가치를 이야기하는 주목적은 사회사업 윤리에 있습니다.

사회사업 윤리는 사회사업하는 데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사회사업 가치 곧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적어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

부연

1. 가치

1) 가치는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어떤 대상의 속성 가운데 어떤 일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 그렇다고 여기는 속성입니다.

예컨대 물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속성이 있는데, 이는 유용한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이 돈을 내고 살 만한, 물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마시는 데는 깨끗한 속성이 좋은데, 이는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살 만한, 그 물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2) 가치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는 속성은 목마를 때는 유용하지만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속성은 마시는 데는 바람직하지만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치는 어떤 대상의 속성이고 그 대상의 가치입니다.

예컨대 갈증을 해소해 주는 속성은 물의 속성이지만 마시는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물의 가치이지 마시는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속성이지만 사회사업의 속성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가치이고 지역사회의 가치이지 사회사업의 가치가 아닙니다.

2. 자주성과 공생성의 결정 요인

1) 자주성

자주성의 핵심 요소는 주체 의식과 역량입니다. 주체 의식과 역량이 있어야 자주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주체 의식은 자기가 주체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려는 생각,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면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은 실제로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자주성은 주체 의식이나 역량보다 돕는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주체 의식이 강하고 역량이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자주성이 낮아집니다. 주체 의식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자주성이 높아집니다.

2) 공생성

공생성의 핵심 요소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관계가 있어야 공생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불어 살려는 마음입니다. 내면의 속성입니다.

공생성은 실제로 더불어 사는 현상적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에서 공생성은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보다 돕는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관계가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공생성이 낮아집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가 약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공생성이 높아집니다.

3. 자주성의 한계

자주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다고 함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자주성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이 자주성을 살리는 일이라거나 사회사업으로써 자주성을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에 자주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나 대개는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할 뿐입니다. 그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돕기, 사회사업가의 책임이나 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아동사업에서는 ‘지금 이곳 이 일이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쯤 선생 노릇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며 자기 삶을 살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기 어렵습니다.

4. 사회사업 윤리

1) 개념

사회사업하는 데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주로 실천 윤리를 가리키고 넓게는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까지 아우릅니다.

① 실천 윤리

돕는 행위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사업 가치입니다.

② 직업윤리

직업이나 직장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나 기관의 윤리 규정입니다.

③ 일반 윤리

직업이나 직장 밖에서의 사회 윤리 또는 개인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의 통념이나 법,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입니다.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는 사회사업론으로 실용성과 정합성이 있게 구체화하기 어렵고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기도 하여 다루지 않습니다. 복지요결에서 사회사업 윤리는 실천 윤리를 가리킵니다.

2) 본질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것, 이는 사회사업 윤리의 ‘현상’입니다.

본질은, 이렇게 돕는 까닭에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사람다움 곧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윤리의 본질입니다. 사회사업 행위가 윤리적인지 성찰하는 물음은 곧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 하는가?’ 함과 같습니다.

사회사업 이상

사회사업 이상은 사회사업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 핵심은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1. 정의로운 사회

사회사업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일반 생활권과 일반 수단에서 약자를 분리 배제 차별하지 않는 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2. 인간적인 사회

사회사업이 지향하는 인간적인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입니다.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사회, 사람들과 부대끼며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혼자서는 아닌 사회,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이고 살 만한 곳, 사람 냄새 나는 곳입니다.

부연

1. 사회사업 이상의 연구 방법

1) 실용성

① 근본을 밝혀 이야기합니다.

근본 없는 이상엔 믿음과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에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이상과 실무가 따로 놀게 됩니다.

② 실무에 닿게 이야기합니다.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하는 겁니다. 추상적이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③ 알맞은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어떤 사업으로든 얼마쯤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상, 이루고 또 이루어도 여전히 바라볼 만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너무 높으면 포기하거나 소진되기 쉽고, 너무 낮으면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2) 당사자, 사람다움

① 사회사업 이상은 특정 당사자를 넘어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리므로 ‘당사자’ 대신 ‘약자’와 ‘누구나’로 이야기합니다.

②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과정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이상은 과정 너머의 지향이라, 과정에서의 사람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일 밖에서 사람답게 사는 문제는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정 너머의 사람다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 이상과 현실

현실은 인식의 산물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현실로 보며 어떤 현실을 더 엄중히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양심, 중요한 타자, 하늘, 역사 따위가 현실일 수도 있고 시세나 명리 따위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1) 이상이라는 현실

①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이 인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또는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상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현실, 참으로 엄중한 현실일 겁니다.

② 이상이 없거나 모호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이야말로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최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상은 무엇보다 절실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을 거슬러 달리 어떻게 해 보려는 건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망상이고, 진짜 현실 무서운 줄 모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2)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이면, 그 이상이 그릇된 현실 인식에 기초했거나 비현실적으로 세운 허황한 이상임을 방증할 뿐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두고 ‘그건 이상이다. 현실은 다르다.’ 함도 온당치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현실을 헤아려 하는 말일 테니 다르다면 그 사람이 보는 현실과 자신이 보는 현실이 다르다 할 일입니다.

3. 사회사업의 발전

이상은 이루고 또 이루어도 끝이 없으니, 발전을 생각합니다.

1) 당사자의 변화

- ① 주인 노릇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짐이 발전입니다.
- ② 둘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풍성해지거나 다양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짐이 발전입니다.

2) 지역사회 변화

- ①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단이 많아짐이 발전입니다.
- ②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많아짐이 발전입니다. 약자와의 관계 소통이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짐이 발전입니다.

3) 사회사업과 복지의 변화

- ① 소박해짐이 발전이고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입니다.
뜻은 사람다움의 알맹이이고 인정은 사회다움의 알맹이인데 대개 소박한 데서 뜻이 맑아지고 인정이 자랍니다. 이따라서 소박해짐이 발전이라고 합니다.

가고 또 가서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이르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이따라서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이라고 합니다.

진미는 물처럼 담박하고 훌륭한 문장은 평범할 뿐이라고 합니다.

- ②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서 나오는 복지, 자연산 복지가 많아짐이 발전입니다. 발전은 결국 ‘자연에 가까워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4. 사회사업의 가치

1) 개념

사회사업 가치도 흔히 사회사업의 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별하여 썼습니다.

사회사업 가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속성 가운데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윤리의 준거입니다.

사회사업의 가치는 사회사업의 속성 가운데 사회에 또는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사회사업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사회사업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본질적 가치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인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이런 사회이게 하는 일입니다.

약자의 복지, 약자와의 공생성은 사회 정의의 핵심 요소이고 이웃과 인정은 인간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회사업은 이것을 살리는 일 곧 이것을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일입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은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는 일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인간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3) 시대적 가치

세상은 이웃과 인정을 버리고 빠르게 비인간화하는 추세입니다.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비인간화에 맞서게 하는 일,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 사회사업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사업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인간 의식을 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주어 끝내 인간 세상을 지켜 낼 것입니다.

사회사업 철학

사회사업 철학은 사회사업 바르게 하는 길을 생각하는 행위 또는 사회사업하는 데 원칙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사업하는 데 원칙으로 삼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복지가 사회 속에 흐르게 하고, 복지 바탕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1. 보이지 않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면,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복지사업으로 보이게 하면,

당사자가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지역사회가 문제 있거나 무정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라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므로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이루어 주기를 삼갑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가게, 당사자가 당당해지고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되도록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의 것으로써 이루게 합니다.

2. 사회 속에 흐르게 합니다.

이웃과 인정은 복지 우물, 복지 시내입니다.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며 온갖 복지를 이룹니다.

이웃 인정 대신하는 복지시설 복지사업은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입니다.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복지 우물이 마르고 복지 시내가 죽어 갑니다.

이웃 관계가 무너지고 인정의 소통이 끊어져, 이웃 인정으로써 이루던 온갖 복지가 사라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로 더 자주 더 크게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에 공들이기보다 복지 우물, 복지 시내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무너진 우물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고, 끊어진 물길 잇거나 새로 내어, 복지가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굽이굽이 돌아 흐르게 합니다.

3. 바탕이 살게 합니다.

온갖 복지를 일일이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근본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은 지금 이 복지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복지까지 이룰 수 있는 바탕입니다.

지역사회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은 이 사람의 복지뿐 아니라 다른 사
람의 복지까지 이룰 수 있는 바탕입니다.

이것을 제쳐 두고 사회사업가 쪽의 지식 기술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
어 주다 보면,

당사자는 주체 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
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고 재미와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
집니다.

이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되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부연

1. 보편적이게 하고 평범하게 합니다.

1) 보편적이게 합니다.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수단이게 합니다.

약자도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다 보면 사회가 일반 수단에서 약자를 수용하게 되고,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사회가 일반 수단에서 약자를 외면 배제하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우선 또는 주로 일반 수단을 활용하게 돕습니다. 약자 전용 수단 활용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2) 평범하게 합니다.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시기 형식 조건 수준 따위를 평범하게 합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개성 추구도, 여느 사람처럼 하게 돕습니다.

별나게 하면,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되도록 평범하게 돕습니다. 별나게 할 수밖에 없거나 별나게 하는 편이 낫겠다면 그렇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보편적이게 하고 평범하게 한다는 철학은 특히 장애인이나 시설 입주자를 도울 때 절실한 '반차별 철학'입니다.

2. 철학

철학은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길에 관한 생각’입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철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길에 관해, 생각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1) 생각하는 행위

철학은 정도를 탐구하거나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인생을 철학한다는 말은 인생의 정도를 탐구하거나 정도로 살고 있는지 성찰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을 철학한다, 사회사업 철학을 한다는 말은 사회사업의 정도를 탐구하거나 정도로 사회사업하고 있는지 성찰한다는 말입니다.

2)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은 원칙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인생철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원칙으로 삼는 생각이고, 사회사업 철학은 사회사업하는 데 원칙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으면, 그 일의 정도를 탐구하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일의 원칙으로 삼는 생각이 정립되는데, 그 생각이 바로 그 일의 철학입니다.

사회사업 주안점

사회사업 주안점은 사회사업에서 복지를 이루는 데 특히 중점을 두어 보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 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입니다.

1. 생태

생태는 상호작용의 양태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 약자와 일반 수단 쪽 사람들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생태에 주안점을 두고 돕습니다.

1)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의 생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게 합니다. 돌레 사람이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합니다.

소외되거나 고립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2) 약자와 일반 수단 쪽 사람들 사이의 생태

약자도 되도록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이로써 약자와 일반 수단 쪽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더불어 살게 합니다. 일반 수단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기 쉬운 약자일수록 이렇게 돕습니다.

3)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생태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 골목 저 동네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복지 활동에 함께하거나 서로 돕고 나누게 주선합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수록 이렇게 합니다.

특히 복지관의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2. 강점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 쪽 강점에 주안점을 두고 돕습니다.

1) 당사자 쪽 강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자원, 의지 성격 체력 탄력성 따위가 당사자 쪽 강점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면 당사자가 힘 있게 됩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이 살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이 돌아가고 당사자가 당당해집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되도록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2) 사회사업가 쪽 강점

사회사업가와 기관의 지식 기술 자원, 후원 봉사나 외부 지원 따위가 사회사업가 쪽 강점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기를 삼갑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3. 관계

관계는 타자와의 연결입니다.

사회사업은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을 사람, 함께하거나 돕거나 니를 만한 사람’과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돕습니다.

1)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는 근본 바탕입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지금 이 복지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복지까지 이룰 수 있는 바탕이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이 사람의 복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이룰 수 있는 바탕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 이 관계를 살립니다.

2) 관계의 우선순위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 쪽 관계를 앞세웁니다.

당사자 쪽 관계가 빈약할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당사자 쪽 관계를 회복 개발하거나 개선 강화하여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당사자 쪽 관계가 빈약하다고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 쪽 관계가 더욱 빈약해집니다. 그럴수록 문제에 더 취약해져서 더 자주 더 크게 복지사업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선 또는 주로 당사자 쪽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관계는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동원합니다.

부연

1. 생태 체계와 안전장치

1) 생태 체계의 원리

생태 체계의 어느 한 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전체 생태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체계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어떤 사업이든 필요성이나 효과나 장점만 내세워 추진할 게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2) 사회사업 안전장치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하고 수월하고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2.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1) 강점과 약점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이고, 약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불리한 점 또는 문제에 취약한 점입니다.

이루려는 복지 또는 다루려는 문제에 달렸습니다.

① 사전의 강점 개념과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강점을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고 하고, 약점을 '남에게 뒤떨어지는 점'이라고 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삼갑니다. 개개인을 각각 고유한 존재로 개별화하여 도우려 합니다.

② 강점과 자원

사회사업으로 이루려는 어떤 복지, 강점은 그것을 생각하며 쓰는 용어이고 자원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강점과 자원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곤 합니다.

보통은 둘 중에 (주로 강점) 하나만 쓰는데 강점과 자원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뜻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면, 강점은 지식 기술 재능 의지 성격 체력 탄력성 따위의 내재적인 것에 가깝고, 자원은 돈 물품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 따위의 외재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2) 장점과 단점

장점은 좋거나 잘하는 점이고, 단점은 좋지 않거나 못하는 점입니다. 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눈높이에 달렸습니다. 좋거나 잘한다고 보면 장점이고 좋지 않거나 못한다고 보면 단점입니다.

① 장점이나 단점 그 자체는 강점도 약점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장점 이야기

그러지 않아도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쉬운데,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더 그럴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장점이라고 판단하는 일 자체가 꺼림칙합니다. 그만한 가치관이나 안목이 있는가, 사회사업가가 할 일인가 하여 삼가게 됩니다.

아동에게는 사회사업가가 얼마쯤 선생 노릇도 하기 때문에 장점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른이거나 또는 잘한다는 그 일의 전문가라면 언짢아할 수 있습니다. 가소롭게 여기거나 건방지게 평가하려 든다고 편안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반응하든, 사회사업가로서는 선을 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제삼자로서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사적 관계라면 혹 모르겠으나 사회사업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살려 쓸 게 아니면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언급한다면,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눈높이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 또는 비교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쓸모가 있겠다 싶을 때, 그것을 활용하여 어떤 복지를 이루고자 할 때, 그때 그 일에 한해 신중히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찾아서 이야기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3. 직접 강점과 간접 강점

1) 직접 강점

직접 강점은 문제와 직접 상관있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예컨대 학습부진 결식 불결 불화 갈등 왕따 폭력 도벽 주의산만 우울증 중독증 따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강점입니다.

소극적 사업이 대개 직접 강점에 해당합니다.

직접 강점을 활용하면 문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활용함이 좋습니다.

2) 간접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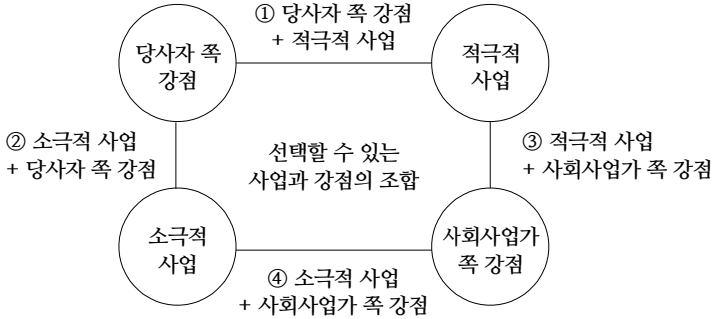
간접 강점은 문제와 직접 상관없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예컨대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신앙생활, 여행, 운동, 산책, 놀이,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 미술관 박물관 탐방, 축제나 문화 행사 참가, 이웃이나 사회사업가를 도와주는 일, 사람 구실이나 어른 노릇 하는 일...

이런 일 또는 이런 일을 돕는 적극적 사업은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를 감당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해 줍니다. 직접 강점과 같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문제를 다루는 데 간접 강점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때



1) 당사자 쪽 강점으로 하는 적극적 사업

- ①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그로써 적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 ② 문제와 상관없이 또는 문제를 보고 적극적 사업을 벌이되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2) 당사자 쪽 강점으로 하는 소극적 사업

문제를 보고 소극적 사업을 벌이되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소극적 사업의 부작용을 조심합니다.

3)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하는 적극적 사업

문제와 상관없이 또는 문제를 보고 적극적 사업을 벌이되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합니다. 또는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보고 그로써 적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의 부작용을 조심합니다.

4)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하는 소극적 사업

- ① 문제를 보고 소극적 사업을 벌이되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합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② 지식 기술 예산 지원금 따위의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쓰려고 소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더욱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5.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1) 문제

① 생태 관점

생태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상호작용의 양태입니다.

생태 관점은 상호작용의 양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생태 관점은 이쪽과 저쪽 사이의 좋지 않은 생태 현상 곧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을 문제로 봅니다.

생태 관점에서 보면, 한쪽 조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 조건만으로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잘 맞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감당할 만한 강점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점은 문제에 약한 점 곧 문제가 생기거나 지속하거나 악화하기 쉬운 조건이고, 강점은 문제에 강한 점 곧 문제를 해소 완화 (예방 억지) 또는 감당 극복하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점입니다.

②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약점이나 단점, 환경의 장애나 위협 같은 한쪽 조건 자체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쪽이나 저쪽, 어느 한쪽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회사업은 주로 생태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대응책을 찾습니다.

2) 대응책

생태 관점은 어딘가에 변화를 일으키면 다른 곳에 변화가 잇따라 일어나고 결국 문제 현상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쪽, 저쪽, 양쪽, 이쪽과 저쪽 사이, 이렇게 여러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사자나 환경의 약점을 다스려서 또는 강점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소극적 사업이나 적극적 사업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다스린다 함은 약점을 수정 보완하거나 해소 완화한다는 말이고, 강점을 살린다 함은 강점을 회복 개발하거나 생동시키거나 개선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당사자와 환경의 약점을 다스리거나 강점을 살리는 일은 원인요법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별이는 사업은 대증요법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원인일 수 있는 당사자와 환경의 조건은 그대로 두고 문제 현상을 해소 완화 진정한다는 말입니다. 근본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 ① 당사자의 약점 다스리기 : 부모의 언어 습관을 개선합니다. 자녀에 대한 간섭 또는 과잉보호를 줄입니다.
- ② 환경의 약점 다스리기 : 자녀의 언어 습관을 바꿉니다. 계입을 줄이거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게 합니다.
- ③ 당사자의 강점 살리기 :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하게 돕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주선합니다.
- ④ 환경의 강점 살리기 : 자녀가 숲에서 흙에서 놀게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합니다.
- ⑤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해를 위한 대화를 주선합니다.
- ⑥ 당사자와 환경 사이에서 문제에 간접 대응하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여행 놀이 요리 등요모임 따위의 적극적 사업을 벌입니다.

3) 다루기 어려운 문제

① 어떤 문제는 (본분과 역량, 가용 시간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볼 때) 직접 다루기보다 전담 기구, 전문 기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게 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② 어떤 문제는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붙들고 씨름해 봤자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사업가만 애매히 부담감이 나 무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 온 문제, 만성이 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도 압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나 너무 힘들다, 내 이야기 좀 들어 주면 좋겠다,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다, 누군가 좀 함께 있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쭙잖은 기법 지식 정보 따위로 분석 상담 조언하려 들면 어찌 될까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처지 심정 노력을 알아주거나 얼마쯤 함께 있어 주기, 이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③ 어떤 문제는 대응하면 텃납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다져지거나 교묘해집니다.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짐짓 모른 채하고 간접 강점, 적극적 복지에 주력합니다.

④ 어떤 문제는 오래 씨름하다 보면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힘듭니다.

때때로 문제에서 벗어나 숨 돌리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다른 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 판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 재미있거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다룰 힘과 의지, 희망과 용기, 사람과 자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의 영향이 희석 상쇄되어 살아갈 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⑤ 어떤 문제는 거기에 갇혀 버린 듯 매여 살기 쉽습니다.

중증의 질병이나 장애로 또는 그런 가족을 돌보는 일로 그렇게 되곤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생의 일부나 반려쯤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다른 면을 보고 찾고 살리게, 그로써 즐거움도 누리며 살게, 돌보는 사람도 자기 삶을 살게,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⑥ 어떤 문제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상대하거나 당사자에 관해 이야기 할 때마다 주로 그 문제를 언급합니다.

예컨대 자폐증이나 치매증 또는 정신 질환이나 술 중독증이 심한 사람, 과잉행동이나 틱 장애가 있는 아이, 공부 못하는 학생...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랫동안 눈총 비난 잔소리, 멸시 천대 따돌림 또는 지나친 관심이나 동정, 어설픈 개입 따위에 이래저래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숨 쉴 곳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회사업가마저 또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찌 될까요?

도와주려고 그런다지만, 문제 나뉘고 이야기하기 나뉘이지만, 저기서도 여기서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제도 오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습니다.

비참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다른 면도 봐 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을 찾고 만들고 이야기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웃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인정 존중받을 일을 하게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여 문제가 있어도 살 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6. 강점 관점

1) 일을 선택할 때

- ① 당사자의 문제를 보고 일을 벌입니다.
- ②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입니다.
- ③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입니다.

문제를 보고 일을 벌이면 문제 관점, 강점을 보고 일을 벌이면 강점 관점이라고 할까요?

강점을 보고 문제를 다루는 일을 벌이면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②번이 강점 관점이라면 ③번은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대상의 핵심 속성이 ‘강점’이 아니라 ‘당사자 쪽’에 있다면, 그래도 이름을 그냥 강점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은 문제를 보고 강점을 활용하는 적극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강점을 보고 문제를 다루는 소극적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강점을 보거나 강점을 보고 문제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와 강점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므로 문제보다 강점을 보자거나 문제 중심 사업보다 강점 중심 사업을 주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보다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소극적 사업보다 적극적 사업을 주로 하자고 할 뿐입니다.

2) 문제를 다룰 때

- ① 당사자의 약점을 다스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 ② 환경의 약점을 다스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 ③ 당사자의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 ④ 환경의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 ⑤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점을 다스리면 약점 관점, 강점을 살리면 강점 관점이라고 할까요?
약점을 다스리려면 당사자 쪽 강점이든 사회사업가 쪽 강점이든 강점을 활용해야 하는데 ①번 ②번의 결국은 무슨 관점이 될까요?

③번이 강점 관점이라면 ④번 ⑤번은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강점 관점이라는 용어로는 ③번의 핵심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다른 것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상의 핵심 속성이 ‘당사자 쪽’에 있는데 이름을 강점 관점이라고 하면 대상과 이름이 부합하지 않고, ‘강점’에 있어서 강점 관점이라고 하면 다른 강점을 보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 강점 관점의 조작적 정의

강점 관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특히 문제를 다루는 데,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이것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는 관점, 또는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이는 관점입니다.

요컨대, 강점을 ‘당사자 쪽’에서 찾거나 당사자 쪽에서 ‘강점’을 찾는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당사자 쪽 강점을 보는 관점입니다.

강점 관점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면 개념을 이렇게 조작하겠지만, 대상과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아 꺼림칙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과 간접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자고 할 뿐입니다. 강점 관점이니 강점 중심이니 하지 않습니다.

7. 임파워먼트

1) 방법

방법으로서 임파워먼트는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힘 있게 하기입니다.

‘당사자를 세우기’쯤 됩니다. 주된 역할을 하게 한다, 빛나고 높아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면 당사자가 힘 있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되고 그로써 당사자가 빛나고 높아집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되기는 오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면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됩니다. 사회사업가가 주인 노릇 하게 되고 그로써 사회사업가가 빛나고 높아집니다.

2) 사업

사업으로서 임파워먼트는 당사자가 ‘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역량을 갖추게 하거나 세력을 형성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임파워먼트는 역량 강화나 세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력화하는 데도 ‘당사자가’ 힘 있게 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어떤 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력화하게 돕는 겁니다.

8. 관계의 양면

1)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괴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피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으로 산다는 건 어찌면 이런 관계까지 끌어안고 부대끼며 산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2) 관계로써 돕는 일, 관계를 살리는 일도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버리고 달리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까요? 사회사업가가 말입니다.

관계로써 돕는다고, 관계를 살린다고, 무턱대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을 관계,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만한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당사자와 의논하여 그리합니다.

3) 관계가 약해졌으니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를 아주 허물어 버리거나 퇴화시켜 결국 복지 바탕을 고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사회는 약자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하는 사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9. 관계의 영역

1) 당사자 쪽 관계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넓게는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이웃 관계까지 아우릅니다.

특히,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을 관계, 복지를 이루는데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는 만한 관계, 사회사업은 이런 관계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① 빈약한 관계는 온갖 문제의 근원이고 풍부한 관계는 온갖 복지의 바탕입니다.

관계만으로 문제나 복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관계야말로 문제나 복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②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에서는 대상자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의 명예와 대상자의 불명예가 비례하여 봉사자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대상자는 구차해 보이기도 합니다. 봉사자는 높고 대상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대상자가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이리므로 되도록 평범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게 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합니다.

2)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 곧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비하면 말단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사업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준비 자원 재주가 좀 부족해도 내용이 좀 부실해도, 사업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됩니다.

① 불평등한 관계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불평등하기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스스로 경계합니다. 마음을 당사자보다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전문가인 양 행세하지 않고, 당사자를 그 복지의 주체로 존중하여 세우려 합니다. 더욱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② 인간적 관계

사회사업가는 당사자 특히 약자와의 인간적 관계가 없으면 가슴이 식어 버리기 쉽습니다.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재미없어집니다. 복지인생 건조해집니다.

당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돕고 싶은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겁습니다.

당사자들과 인간적 관계가 있으면 그들이 사회사업가를 도와줍니다. 잘하면 칭찬 인정해 주고 힘들어하면 위로 격려해 줍니다.

당사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촉촉하게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사업가 쪽 관계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동료들과 지지와 격려, 자극과 책선,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더불어 절차탁마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10. 생태와 관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생태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서로 연결된 것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양태를 가리켜 생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호작용의 양태로써 관계의 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별 관계가 아니라거나 관계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때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러므로 생태와 관계를 나누어 따로 이야기함이 꺼림칙합니다.

다만 하나만으로는 사회사업 주안점을 설명하기에 부족하고 아쉬워서 여기서는 둘 다 이야기합니다.

구분하자면,

생태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며 사는 모습 또는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며 사는 모습에 가깝고,

관계는 그렇게 살면 좋을 사람이나 그렇게 살 만한 사람이 있음 또는 그런 사람과의 알음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 방법

사회사업 방법은 사회사업 행위의 실제 형식입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되고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1. 인사

1) 당사자에게 인사합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살고 있거나 주로 활동하는 곳에 찾아가 인사합니다.

2) 지역사회에 인사합니다.

① 당사자의 지역사회에 인사합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섭외하고 안내하게 합니다.

② 기관의 지역사회에 인사합니다. 담당 사업이나 기관과 관계있는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인사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인사 다니다 보면 사람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지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고 지역사회의 정서와 문화를 알게 되고 처신할 바를 알게 됩니다.

인사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해 옹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멀어집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 자체가 복지가 되기도 합니다.

인사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인사 다니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사업 실마리이고 밑천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지혜 열정 저력 자신감 여유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1) 묻기

즉석에서 선택 결정 대답할 만한 것이 아니면 다음과 같이 잘 알아보고 검토 궁리 의논하여 선택 결정 대답하게 합니다.

① 두루 알아보게 합니다.

- a. 문헌을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해 보게 합니다.
- b.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의논해 보게 합니다.
- c.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물어보게 합니다.

② 시간을 두고 검토 궁리해 보게 합니다.

③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사업 설명회, 프로그램 설명회, 활동 설명회에서 보고 듣고 상담하고 비교 검토하여 선택하게 합니다.

④ (하기로 한) 특정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은 기획단 따위의 당사자 조직이 두루 알아보고 의논하여 계획하게 합니다.

⑤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물을 때는 내용 방식 장소 일정 비용, 책임과 권리 따위를 잘 알고 대답하게 합니다.

참조 : 사례관리 사회사업 '초기 대화'에서 묻기

2) 의논하기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책임,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 따위를 헤아려 의논합니다.

의논할 때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합니다.

3) 부탁하기

① 당사자에게 부탁하기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되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서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먼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거들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지역사회에 부탁하기

당사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부탁합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3. 감사

1)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노력 수고, 도움 나눔, 배려 응원 따위에 감사하고 그로써 얻은 성과에 감사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기여한 것, 이룬 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2)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의미 감동 효용이 있었는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당사자의 동의하에) 둘레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3) 지역사회에 감사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당사자가 감사하게, 당사자도 감사하게, 넌지시 권해 봅니다.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감사하면 또 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는 일이 갈수록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사회사업가의 일은 갈수록 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런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마워서 감사하고 마땅한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사회사업은 감사로 완성되고 감사 잘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부연

1. 관념적 방법과 실천적 방법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1) 관념적 방법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서도 사회사업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하자,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하자,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복지가 사회 속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복지 바탕이 살게 하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돕자, 합니다.

모두 ‘사회사업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2) 실천적 방법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형식입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서 밝힌 생각대로 실천할 때 실제로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하는 행위,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하는 행위,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복지가 사회 속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복지 바탕이 살게 하는 행위,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돕는 행위,

이런 행위의 실제 형식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실천적 방법은 한마디로 ‘사회사업 행위의 실제 형식’입니다.

2. 사회사업 방법의 조건

1)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당사자가 빛나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니 그렇게 됩니다.

2) 사회사업가들이 수월하게, 재미있게 일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니 수월합니다. 예산이나 지원금 따위를 신청하고 받고 쓰고 뒤처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에 보람 감동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3) 일반 복지기관의 일선에서 일하는 보통의 사회사업가들이 적용할 만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물론이고 대학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됩니다.

4) 부작용이 없거나 적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부작용이 없거나 적습니다.

5)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나무가 그 본성을 이루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가 자란 환경과 나무의 성질 생김새 곁을 살펴 그 자연을 따를 뿐 감히 거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기계를 덜 쓰고 인위를 덜 가하고 되도록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살아나고 그로써 복지를 이루게 됩니다. 자연에 가깝습니다.

3.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의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당사자가 의욕 열정 흥미를 잃고 시큰둥해지거나 그만두거나 내맡겨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른 의견을 내세워야 할 만큼 당위성이 충분한지, 그럴 만한 관계인지, 헤아려 봅니다.

1)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사업가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의 의견대로 합니다.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고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면 더욱 이렇게 합니다.

2) 당위성이 충분하더라도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면, 사회사업가의 의견을 비판 간섭 훈계 지시 통제로 느낄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말투 표정 자세 몸짓, 낱말과 토씨까지 더욱 신중히 합니다.

가능하면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까지 미룹니다.

미루기 어려우면,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설득해 봅니다. 변론은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3) 당위성이 충분하고 그럴 만한 관계이면, 사회사업가의 의견을 적극 내세우되 그 까닭을 직접 설명해 주거나 당사자가 알아보게 합니다.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절충안으로써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둬도 좋으나 부득이하면 양해를 구하고 사회사업가의 의견대로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4. 자기 결정권

1)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이 함께하기도 하고 둘레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2) 사회사업가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그냥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정할 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한 대로 따르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과업에 가깝습니다.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두루 알아보고 둘레 사람과 의논해 보고 스스로 검토 궁리하여 잘 판단 선택 결정하게 돕는 겁니다.

4) 사회사업에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실리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있을까요?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듯 자기 결정권을 운운함은 우민 취급하는 말, 우민화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당사자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함으로써 책임 시비를 면피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5. 잘 부탁하기

1) 때를 살핍니다.

때가 아닌데 부탁하면 언짢아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거부하거나 마지 못해 응합니다.

사회사업에서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삼갑니다. 다만 명분과 정성은 관계의 때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뜻을 잘 설명하고 정성스레 부탁하면 바로 잘될 수 있습니다.

2) 자리를 살핍니다.

부탁하기 좋은 자리를 고릅니다. 여럿이 모인 데서 부탁해도 될지 몇 명 또는 한 명씩 따로 만나서 부탁해야 좋을지 헤아려 봅니다. 기관에서 부탁해도 될지 찾아가서 부탁해야 좋을지 헤아려 봅니다.

3)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다 부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처지 정서 의지 역량 따위를 헤아려,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부탁할 뿐입니다.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4)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지 않습니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둡니다.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들해지거나 그만두기 쉽습니다.

5) 당사자의 지역사회에 부탁드립니다.

① 당사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부탁하면 동냥하는 꼴이기 쉽습니다. 불쌍한 사람이거나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런 인상 그런 관계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그 밖의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부탁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② 기관의 지역사회 곧 기관과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원 봉사를 부탁하거나 받는 건 어떨까요? 기관이나 직원을 위한 후원 봉사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당사자를 위한 후원 봉사라면 조심스럽습니다.

부탁하지 않고 받지도 않음이 좋습니다.

부탁한다면 당사자가 찾아서 부탁하게 하고, 받는다면 당사자가 살펴서 받게 합니다. 대신하여 부탁하거나 받는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6)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도 되도록 당사자가 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거들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당사자와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로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지 헤아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소극적 복지를 이루는 일 곧 당사자의 문제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6. 약자일수록

약자일수록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이나 지적 약자, 자폐증이나 치매증이 있는 사람, 정신 질환이 나 술 중독증이 있는 사람, 귀 어둡거나 어눌한 사람, 전신마비 상태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1)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 진정으로 도우려 하는지... 약자일수록 예민합니다. 오래 도움을 받다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므로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2) 약자일수록 사회사업가의 영향이 큽니다.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당사자의 자아상이나 자존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시설에서는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입주자에게 복사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이런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3) 약자일수록 꺼리기 쉽습니다. 귀찮거나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옵니다. 일이 잘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고 그 기운이 사람을 움직여 일이 잘되게 합니다.

이러므로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4) 약자일수록 상처 받기 쉽습니다.

여느 사람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아도 혹 괜찮을지 모르나 약자는 괜찮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혹 괜찮다고 할지라도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약자라서 그런 식으로 당하기 일쑤인 무시 배제 소외, 그 굴욕감 서러움 무력감을 생각하면 사회사업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 하는 약자에게는 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5) 약자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도 부지중에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외인 곧 여느 사람은 흔히 당사자를 그렇게 대하곤 합니다. 특별히 못된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회사업가 자신이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자일수록 더욱 삼가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이렇게 하면 외인도 마음과 태도를 삼가 다잡게 됩니다. 이런 사회사업가 앞에서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6) 약자일수록 소통이 절실합니다.

이러므로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사회사업가와 당사자의 지적 기능이나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도 노력하고 당사자도 노력하게 돕습니다.

7. 경청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지라도 경청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은 잘 들어야 잘됩니다.

1) 말하는 사람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고 듣습니다.

2)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했거나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며 듣습니다.

조심스럽게 묻거나 헤아려서 알아주기도 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 공감

① 일반적 공감 : 어떤 것에 대하여 감정이나 인식을 공유함

② 사회사업적 공감 : 당사자의 처지, 생각 감정 행위, 이야기를 최대한 그 사람처럼 이해하여 소통하려고 함. ‘경청’으로 구체화합니다.

3) 화면을 보거나 자료를 이리저리 넘겨보지 않습니다. 기록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합니다.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드나들거나 지나가거나 다가와도, 무슨 소리가 나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중단할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하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대화를 재개할 때 ‘아까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합니다.

듣는 자세, 이로써 사회사업가의 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약자가 말할 때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회사업가이겠다 싶습니다.

8. 칭찬

1) 당사자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당사자와의 관계를 헤아리고, 제대로 알아줄 만한 식견이 있는지 해야합니다.

2) 소박하게 칭찬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 비교되기도 하고 이때의 칭찬과 다른 때의 칭찬이 비교되기도 한다는 점을 해야합니다.

3) 어른이나 전문가에게는 은근히 높여 드리는 간접 칭찬이 좋습니다.

①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분의 행위로 인해 생긴 효과나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② 그분이 하신 그 일에 관해 자세히 여쭙거나 그 일을 다시, 또, 더,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직접 칭찬하면 아래로 대하여 평가하는 것 같은 모양새이기 쉽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나 말투 태도 상황 나름이긴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9.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1)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이내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됩니다. 물을 것 묻게 되고 의논할 것 의논하게 됩니다. 부탁할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할 만한 때에 부탁하게 됩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강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황금 어장 만난 어부처럼, 노다지 캐는 광부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강점을 닮은 꼴 불러들이는 마법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지식 기술 자원이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됩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경험, 무엇인가 이루어 내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납니다. 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저력이 되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남을 돕는 경험, 그로써 느끼는 기쁨 재미 보람 감동, 사람 사는 맛이 생겨납니다. 약자를 이해하게 되고 함께하거나 돕는 요령이 생깁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납니다. 이는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강점이 됩니다.

3)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까닭이 이런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려는 정신의 발로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더불어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10. 결언

결언은 ‘말을 구함’ 또는 ‘구하는 말’입니다.

1) 결언은 의견 정보 지식 따위의 말을 구함입니다.

그 실체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말하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2) 결언은 주인 노릇이나 참여 도움 나눔 따위의 행동을 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실체 또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행동하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요컨대 결언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말하고 행동하도록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복지요결에서 ‘결언’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맺음말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는 길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했습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까지, 생각이 나아간 만큼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록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돕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1. 주선하고 거드는 사람

1)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복지 대행업자’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2) 사회사업가는 거드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앞세우고 뒤에서 보조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고 부족한 만큼 보조합니다.

당사자가 주연인 무대에 사회사업가가 잠시 등장할 수는 있으나 대개 단역으로도 족합니다. 조연이랄 것도 없습니다.

2.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

1)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사자가 얻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얻어다 주는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얻어다 준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에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2)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주게 합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전달자나 배달꾼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는 얻어다 주거나 받아서 전달하기보다 당사자가 얻게 하고 지역사회가 주게 합니다. 고기 잡는 법은 직접 또는 교육 사업으로 가르쳐 주기보다 당사자가 배우게 하고 지역사회가 가르쳐 주게 합니다.

부연

1. 발로 일하는 사람

사회사업은 발을 통해 옵니다.

발이 닳도록 지역사회를 두루 다니면,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지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발이 닳도록 걸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야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하게 되고 지혜도 생깁니다. 사회사업은 그렇습니다.

사회사업은 발로 이룹니다.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두루 다니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 구슬 꿰는 사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고, 그물이 삼천 코라도 버리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많고 자원이 많아도 꿰어서 잘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갈수록 절실해집니다.

남을 돕는 일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고 종종 적잖은 시간 물질 마음 힘을 써야 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돕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스스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때 여력이 있어 의욕적으로 나설지라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돕는 일을 주선하고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로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사업가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구슬 꿰는 사람입니다.

3.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여자와 엄마의 관계라고 할 만합니다.

2) 사회사업은 사업의 주체나 종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를 붙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사회복지는 사업의 목표나 결과로서 ‘되는 것’ 곧 사업의 대상자가 얻게 되는 것이나 하게 되는 일이나 이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업무의 전문가 또는 직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를 붙임이 억지스럽습니다.

사회사업이라는 행위성 명사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행위성이 없는 명사인 사회복지에 ‘사’를 붙여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할까요?

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4. 사회사업가의 재주와 자원

사회사업가는 재주나 자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주나 자원이 없는 편이 좋은 경우가 많고, 있어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재주와 자원을 살려 쓰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재주와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2%가 부족하면 98%를 살려 쓰게 하고 2%만 거들어 줍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줄 수밖에 없거나 그러는 편이 좋겠다면 그렇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5. 꺼져 가는 심지, 상한 갈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꺼져 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비켜, 우리가 해 줄게.’ 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잘 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그렇다고 대신 복지를 이루어 주는 노릇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마땅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꺼져 가는 심지를 돋우고 상한 갈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니, 꺼져 간다고 덮어 버리거나 상했다고 꺾어 버리고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6. 주는 노릇

1)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①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②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고 사회사업가를 불편해하거나 피하기도 하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③ 주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2) 사회사업가가 해 주거나 주면 안 될까요?

관계나 분위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혹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자주를 앞세우고 친해진 후에는 더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당사자의 수고 없는 시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지 않는 방식,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 재화로써 해 주거나 주는 일은 복지 바탕을 해치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떠맡기려 할지라도 떠맡아 대신 해 주기를 삼갑니다.

그럴수록 더욱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거들어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되도록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나 자원을 쓰지 않고 대신 해 주지 않고 주는 노릇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일방적으로 해 주거나 주면 당사자가 자존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라해지기 쉽고 심하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주도권 통제권이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있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존 욕구, 이는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인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내적 근거가 강한 사람에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

애정 욕구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부부 사이도 애인 사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7.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1) 탈무드 이야기

- ① 생선을 준다.
- ②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가난하여 생선을 살 수 없거나 장애가 있어 고기 잡으러 갈 수 없으니 생선을 준다? 몰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문제의 원인이 당사자 쪽에만 있다는 듯 당사자만 상대하는 방식이고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주는 노릇 하는 방식이라, 사회사업가가 취할 답은 아닙니다.

생선을 줌으로써 족할 수도 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주기 나름이고 가르쳐 주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하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묻는 것이라면 둘 다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2) 사회사업 이야기

- ① 당사자가 생선을 구하게 합니다. 정부 기관에 신청하게 하거나, 부탁할 만한 사람을 찾아 부탁하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생선을 주게 합니다. 고기를 잡거나 생선을 살 때 조금 더 잡거나 사서 나누게 주선했습니다.

- ② 당사자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김에 같이 가서 가르쳐 주게 주선했습니다.

- ③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구를 확보 또는 공유하게 돕습니다. 어장에 장애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게 돕습니다.

8. 사회사업 하수와 교수

1) 사회사업 하수는 새롭거나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사회사업 교수는 옛것이든 새것이든 남과 다르든 같은 다만 마땅함을 좇아 행합니다.

2) 사회사업 하수는 복지시설에 외장형 복지사업을 만들고 사회사업 교수는 지역사회에 복지 내장형 사람살이를 살립니다.

이로써 사회사업 하수는 복지를 소유하고 사회사업 교수는 복지를 소통시킵니다.

3) 사회사업 하수는 자기 쪽 강점을 활용하고 사회사업 교수는 당사자 쪽 강점을 활용하게 합니다.

이로써 사회사업 하수는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되고 사회사업 교수는 당사자가 힘 있게 합니다.

4) 사회사업 하수가 주선하는 관계는 봉사자 대 대상자, 후원자 대 대상자 관계입니다.

사회사업 교수가 주선하는 관계는 보통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도와주었다고 봉사자라 하지 않고 도움 받았다고 대상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친척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5) 사회사업 하수는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이로써 드러나는 ‘복지사업’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사회사업가가 빛나고 사회사업가에게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사회사업 교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이로써 드러나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9. 사회사업가의 별칭

1) 사회공작원

사회사업가는 사회가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공작하는 사람, 사회공작원입니다

2) 사회운동가

사회사업가는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려고 운동하는 사람, 사회운동가입니다.

3) 저항운동가

사회사업가는 세상의 비인간화에 맞서는 저항운동가입니다.

4) 친민가

사회사업가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하는 친민가,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친민사업가입니다. 참조 : 복지**소화** ‘친민지도’

복지관 사회사업

1. 복지관

복지관은 사회사업 기관과 이용 시설의 결합체입니다.

이용 시설이 딸린 사회사업 기관 또는 사회사업 기관이 운영하는 이용 시설, 양쪽에 통용합니다.

1) 기관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주 대상이 특정된 복지관은 대상을 넣어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장애인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2) 시설

이용 시설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주 대상이 특정된 복지관 예컨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2. 복지관의 3대 사업

1) 개별사회사업

복지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돕는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 집단사회사업

복지 당사자를 집단으로써 돕는 ‘방법’이기도 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3) 지역사회사업

복지 당사자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돕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3. 개별사회사업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1)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되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먼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거들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2) 당사자 쪽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복지관의 자원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활용합니다.

다른 복지기관이나 정부의 자원,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찾아 활용하게 중개합니다. 지역사회는 되도록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합니다.

4. 집단사회사업

1) 직영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개발

당사자들과 지역사회가 기획 제안하게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직접 기획 제안하기도 합니다.

② 설명회

기획한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와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설명회 팀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③ 실행

당사자들이 준비 실행하되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주선합니다.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복지관 자원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당사자들이 신청하여, 활용하게 합니다.

④ 발표회, 평가회

추억 활동 배움 희망을 나누며 서로 감사합니다. 발표회 팀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2) 외주 및 제휴 프로그램

① 활동 개발

이 동네 저 골목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어울리기 좋은 활동을

- a. 지역사회에서 찾아봅니다.
- b. 지역사회가 기획 제안하게 부탁하거나 공모합니다.
- c. 사회사업가가 기획하여 지역사회에 위탁합니다.
- d. 외부 전문가나 전문 기관에 의뢰합니다. 참조 : 복지경영 '외주'

② 설명회

활동을 소개하는 마을 잔치를 합동으로 벌입니다.

활동별로 전시 상담 접수하는 자리와 공연무대 놀이마당을 운영합니다. 설명회 팀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③ 실행

당사자들이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실행합니다.

복지관은 각 활동의 지도자 연수, 공동 상표 활용, 홍보, 기타 연합 행사를 주선합니다.

④ 발표회

활동을 전시 발표하고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잔치를 합동으로 벌입니다. 공연무대와 놀이마당도 운영합니다. 발표회 팀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음식과 선물은 참여자들과 지역사회가 조금씩 추렴합니다.

이런 활동으로 누리는 재미가 있고 어울리는 이웃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동네 그 골목 정붙이고 살 만하지 않을까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을까요?

5. 지역사회사업

1) 생활복지운동

예를 들어

아이를 안아 주세요.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아이들이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골목에서 숲에서 흙에서)

인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이런 일을 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매월 한두 시간씩,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꾸준히 진행합니다.

안아 주기만 해도, 어울려 놀기만 해도, 인사만 잘해도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문제를 예방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할 수 있고 온갖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사람 사는 것 같을 겁니다.

2) 자유 활동가

활동 지역, 근무 시간,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며 자유롭게 일합니다.

이 동네 저 골목 두루 다니며 복지 활동을 주선합니다.

예컨대 음악, 문학, 육아, 자녀 교육, 반려동물, 텃밭, 화초, 건강, 운동, 다과, 요리, 떡 도르리, 취미, 친목, 여가, 놀이, 독서, 소풍, 만들기 따위의 이런저런 활동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울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동네 그 골목 사람 사는 것 같을 겁니다.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다 보면 사람이 보이고 조직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이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갈수록 요령이 생기고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지역사회 조직이 생기고 지역사회 조직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복지관 사회사업가라면 누구나 이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교대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또는 한 달에 며칠씩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복지관마다 이런 사회사업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참조 : 복지경영 '현장 중심 근무, 현지 완결형 사업'

3) 소식지

기획부터 제작 배포까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지역사회가 사회의 것으로써 이루게 합니다.

① 주체

복지관 이용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자단에서 기획 제작 배포합니다.

② 내용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이루고 누리는 이야기, 생활복지운동으로 생겨나는 생활복지 이야기, 자유 활동가가 주선하는 사회의 이런저런 복지 활동 이야기, 복지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복지를 이루는 이야기, 정겨운 사람살이 이야기, ‘이야기’를 담습니다.

③ 배포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기자단이 소식지를 가져가서 나눕니다. 본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본인이 만든 소식지이니 잘 나누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곳곳에 소식지를 놓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정겹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야기’ 소식지이니 환영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꽃이 피어나지 않을까요? 온라인 소식지도 이렇게 공유합니다.

부연

1. 시설 운영사업과 시설 복지사업

복지관의 본체는 사회사업 조직으로서의 기관이고 핵심 사업은 사회사업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이용 시설이 팔려 있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운영사업과 시설 복지사업이 생겼습니다.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복지관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 시설 운영사업

① 직영

복지 당사자가 이용 주체이게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신청하고 준비하고 이용 후 정리하는 데까지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돕는 겁니다.

②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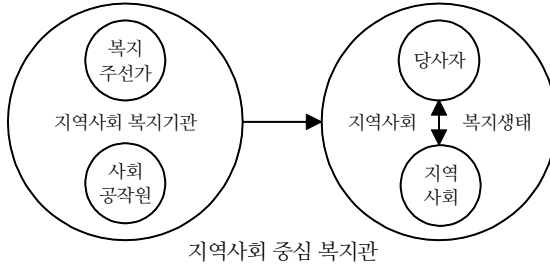
지역사회 조직들에 일부 호실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회원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 조직 명의의 사업을 하게 합니다.

2) 시설 복지사업

사회사업가가 시설에서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신청하고 준비하고 이용 후 정리하는 데까지 사회사업가가 주관합니다. 이런 사업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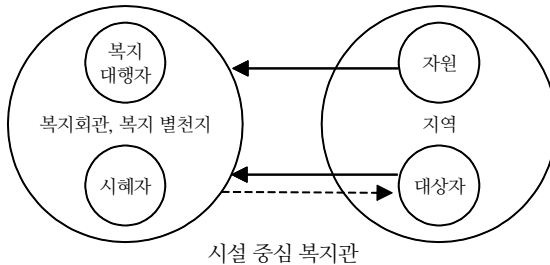
참조 : 복지**경영** '가상 복지관', '복지관의 시설 활용'

2. 지역사회 중심 복지관과 시설 중심 복지관



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복지를 이룹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빛나고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갈수록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많아지고 약자와의 관계 소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로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복지관이 사람들이 모이는 복지회관, 별천지 같은 곳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복지관에 후원하거나 복지관에 와서 봉사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사업이 빛나고 복지관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갈수록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시설 복지사업, 복지 대행업, 복지 배달업이 증가합니다.

3. 지역사회조직

1)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사업 ‘방법’입니다.

복지 당사자를 돕는 방법, 사업을 하는 방법, 방법입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시설 운영사업 따위의 사업을 지역사회조직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사례관리 사업, 반찬 사업, 김장 사업, 경로식당 사업, 소식지 사업, 사회교육 사업, 나들이 사업, 도배 청소, 캠프, 바자회, 축제 따위의 사업을 지역사회조직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서나 대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면 좋을 방법입니다.

2)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는 일, ‘사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나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① 시설 운영사업을 주관합니다. 지역사회 조직을 찾거나 만들어 복지관의 각 공간에서 그들의 사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② 외부와의 교류 협력 연대 활동에 복지관 쪽 창구 노릇을 합니다.

③ 전염병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 갈등 혐오 차별 같은 사회 문제가 불거질 때, 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합니다.

④ 생활복지운동, 자유 활동가, 소식지 사업을 주관합니다.

⑤ 마을 신문이나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4. 노인복지사업

- 1) 당신의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실 뿐 아니라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 2) 때때로 어르신을 살펴봐 드릴 이웃, 급할 때 어르신 본인이나 멀리 사는 가족이 도움 청할 수 있는 이웃을 주선했습니다.
- 3) 이용해 오시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를 여전히 얼마쯤 이용하며 당신의 생활을 얼마쯤 이어가실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주방 욕실 따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도구 활용을 지원합니다.
- 4) 치매증을 자각할 때 둘레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화, 치매증이 있는 분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듭니다. 참조 : KBS '[치매](#)사회 생존법'

5) 프로그램

- ① 노년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일상적 과제를 배우고 수행하고 그 지식 경험 생각을 나누시는 연구·학습 모임, 강좌,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따위의 활동을 기획 준비 진행하시게 돕습니다.
- ② 둘레 사람에게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는 활동을 어르신들이 기획 준비 진행하시게 돕습니다.
- ③ 문학 동아리, 음악 동아리, 건강 동아리, 화초 동아리, 텃밭 동아리, 동물 동아리, 다른 지역 다른 복지관 동아리들과의 교류 및 연합 활동, 문학 여행, 역사 여행, 추억 여행, 떡 도르리, 반찬 마실, 차 마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활동을 어르신들이 기획 준비 진행하시게 돕습니다.

5. 장애인복지사업

1) 사업 대상을 ‘지원이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예컨대 이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교통 약자나 이동 약자 따위로 표기합니다. 지체 장애인이니 지적 장애인이니 하지 않습니다. 이동 장애인이니 학습 장애인이니 하지도 않습니다. 참조 : [장애](#) 개념

2) 일반 수단으로써 평범하게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①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장애인 전용 수단으로써 하는 일, 장애인끼리 따로 하는 사업을 삼갑니다.

②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이용하는 수단뿐 아니라 복지를 이루는 방식 조건 수준 따위도 별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거나 다르게 하는 편이 낫겠다면 그렇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3) 장애 운동을 주도 주선하거나 장애 운동 조직과 협력합니다.

장애인을 배제 차별 억압하거나 수용적이지 못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사회사업이나 지역사회사업을 벌입니다.

복지관에 장애 운동 주관 부서를 만들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외부의 장애 운동 조직과 연대합니다.

아동 사회사업

1. 지역아동센터

1) 기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2)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이루는 데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① 아동이 센터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하거나 놀거나 먹거나, 이런저런 활동을 제안 선택하여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 이용합니다.

② 아동의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센터에서 아동을 위한 활동, 아동과 함께하는 활동을 제안 선택, 준비 실행, 참여 이용합니다. 지식 정보 경험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상담 위로 격려합니다.

사회사업가는 아동과 지역사회가 이렇게 이용하게 주선합니다.

2. 기초

1) 골목에서 흙에서 숲에서 어울려 놀게 합니다.

2) 자연을 잘 누리게 합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 꽃과 풀과 나무, 해와 달과 별, 비와 눈과 바람을 좋아하게 합니다. 많이 걷게 합니다.

3) 책을 읽거나 읽어 주게 합니다. 국어사전을 가까이하게 합니다.

책으로 토론 놀이 연극도 하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4) 지역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합니다.

걸어서,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답사 탐방 순례 여행하게 합니다. 지도를 자주 보게 합니다.

5) 활동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게 합니다. 함께 의논하여 기획 준비 진행하게 합니다. 돌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겁니다. 우정이 자라고 추억이 생길 겁니다. 관계 소통 공감할 줄 알고 이해 존중 배려할 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게 될 겁니다. 어휘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겁니다. 환경을 생각할 줄 알고 생명을 귀히 여기게 될 겁니다.

3. 프로그램

1) 선택할 수 있게

전체 아동을 한 프로그램으로써 아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나이나 관심이나 재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하게 합니다. 큰 프로그램이라면 기획단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로 의논하여 기획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지역사회가 만든 프로그램, 사회사업가가 구상한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신청하게 합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 선택을 돕거나 조정합니다.

나아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정리하는 데도 당사자인 아이들이 주인 노릇 하게, 주체로 참여 기여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이루고 누리는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합니다.

※ 인력 부족?

당사자와 지역사회 가운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저마다 전공 지식 경험 취미 직업을 살려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개인이나 조직도 많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그렇게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면 됩니다. 모아서 소개하되 설명회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설명회를 계획 준비하고 진행하는 활동 자체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종합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 아이들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①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체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그 자체로 놀이가 되고 공부도 되고 생활 과업이 해결되게 합니다. 아이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이들의 놀이, 교우, 청소, 정리정돈, 위생관리, 운동, 인사, 감사, 사과, 위로, 격려, 말하기, 듣기, 집안일, 읽기, 쓰기, 예습 복습 숙제 따위의 일상생활이면 좋겠습니다.

센터 공간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집과 학교, 어른들 일터, 산과 들과 시내, 마을 동네 골목에서 하게 돕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가르치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과업으로써, 배우게 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섬 사회사업 게시판 [95](#)번 글

② 프로그램이 항상 새롭거나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항상 새롭거나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번 새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마땅히 해야 하고 누려야 할 아이들의 일상, 그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함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재미있는 것을 탐닉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는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생활하고 관계하고 일하기를 바르게 하여 마땅히 나아갈 바를 밝히고 실천함이 곧 공부라 했습니다. 발전은 마땅한 삶에 다가가고 기본에 충실해짐이지 자꾸 새롭고 특별한 것을 좇음이 아닙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섬 사회사업 게시판 [853](#)번 글

3) 방학 활동

①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방학 활동 기획 준비 실행에 참여하게 합니다.

방학 활동을 기획 준비 실행하는 데 당사자인 아이들과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주인 노릇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두루 물어보고 모여서 의논 잘하게 돕습니다.

아이들이 의논하게 합니다. 자료나 정보를 얼마쯤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아이들 나름대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모여서 의논 잘하게 주선합니다.

지역사회 조직도 각각 자신들의 일을 소재로 아이들을 만나게,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유익하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활동을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드립니다.

외부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밖에서 다 준비해 와서 베풀어 주거나 대신 해 주지 않게 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섬사회사업 게시판 [853](#)번 글

② 방학 활동 기록

아이가 참여한 활동, 그 과정에서 만든 문서나 작품, 자기소개서, 활동 계획서, 모집 안내문, 신청서, 활동 기록, 감사 기록, 발표회나 평가회 자료, 편지, 사진, 수료증을 모으면 보통 한 학기에 파일 한 권은 됩니다. 방학 활동만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의논하여, 학교에 한 부 보내고 센터에 한 부 보관하고, 원본은 아이에게 줍니다.

4.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1)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눈높이도 사회사업가 눈높이에서 헤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설사 ‘아이들 눈높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아이마다 다르고 같은 아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눈높이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어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회사업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지를 이루어 주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눈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아이의 눈을 알고 있을지라도, 아이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아이가 아이 자신의 눈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2) 아이들 언어 행동 문화에 맞추어 아이들처럼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와 자리에 어울리게, 각자 자기답게 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아이들에게 어른이고 사회사업가입니다. 어른답고 사회사업가답게 본연을 지키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사업가를 보며 배운 대로 어른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더욱 어른답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눈높이 아이들 문화에 맞추어야 하는지 맞출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사업가로서 나이와 자리에 어울리게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참조 :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933](#)번 글 ‘나는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싶은가?’와 [642](#)번 글 ‘아이들이 다들 때 어떻게 할까?’ 최선웅 선생님 글 모음

3) 마음과 태도

마음과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잘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곧 잊히거나 무너질 겁니다.

꾸민 말과 표정, 지식과 기술로써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겁니다.

마음과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귀하게 대하면, 아이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인생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남을 겁니다.

살아가다 문득 생각나는 선생님, 어른이 되어서도 알게 모르게 삶 속에 그 흔적이 묻어나는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서 받은 사랑, 귀하게 존중 받은 경험, 그 영향이 클 겁니다.

참조 : 섬할 게시판 [1242](#)번 글 '프로그램 행사 - 어떻게 하면 잘될까?'

4) 아이에게 감사하기

아이의 착한 언행에 민감하게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의 작은 진보와 성장에도 민감하게 칭찬 감사로써 반응합니다. 아이에게 생긴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아이가 기뻐하는 일에 감사합니다.

짐짓 꾸민 말이나 상담 용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고맙다고만 해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며 미소 짓는 표정 그 눈빛만으로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아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만난 사회사업가 선생님,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원문 : 섬 사회사업 게시판 [1425](#)번 글

부연

1. 아이들이 사는 마을

학교 마치고 센터로, 센터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 하고 센터에서 놀고 센터에서 저녁 먹고...

안타깝습니다. 마을 동네 골목에 아이들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같이 먹고 나눠 먹는 데서 인정이 사는데...

마을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이 미소 짓고 그렇게 아이 어른 어울려 사람 사는 것같이 사는 지역사회, 식구가 함께 먹고 이웃 아이와도 함께 먹는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이런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관계와 소통, 정겨운 사람살이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아동 복지 별천지를 만들기보다 지역사회가 아동 복지를 이루는 곳, 아동이 살 만한 곳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2.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

박경희 선생님, 김동찬 선생님, 전효민 선생님, 최선웅 선생님, 이준화 선생님의 사회사업 기록에서 아동 청소년 활동을 발췌 요약했습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494번 글](#)

1) 평생학습(사회교육), 취미활동

문학, 노래, 악기, 춤, 운동, 요리, 등산, 사진, 공예, 철학, 예의·매너, 사교... 자료를 찾고 둘레 사람에게 물으며 스스로 배우거나 동네 어른을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어른들이 전공 직업 취미를 살려 이런저런 활동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계획하고 모집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나누는 데 아동과 어른이 함께합니다.

2) 설명회와 수료식

방학 활동도 학기 중 활동도, 당사자와 둘레 사람을 초대하여 설명회로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당사자가 제안하고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이나 사회사업가가 제안합니다.

수료식 겸 발표회로 마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활동을 발표하고 배움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발표회 겸 수료식은 언제나 정겹고 신나는 마을 잔치입니다.

참조 : 방학 활동 설명회 기록 - 철암 [2023년](#) 겨울

3) 야영, 캠핑 : 숲 속, 호숫가, 강가, 계곡, 캠핑장...

자료를 찾아보고 두루 물어보고 의논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텐트를 치고 화장실을 만들고 캠프라이어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장비와 도구를 조달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는 일도 아동과 지역사회가 나누어 맡습니다. 야영에 온 마을 어른 아이 선후배 형 동생이 어울립니다.

4) 여행, 순례

도보순례, 자전거 여행, 트레킹, 졸업여행, 지역탐방 순례, 진로 찾기 여행, 문학 여행, 역사 여행, 타 지역·기관·모임과의 교류 방문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교통 식사 간식 숙소 사진 기록 회계 따위의 과업을 분담합니다. 여비는 둘레 사람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격려 글과 함께 격려금을 받아 마련합니다. 용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5) 하룻밤

복지관, 도서관, 펜션, 온천, 리조트, 친구 집, 할머니 댁에서... 몇 곳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또는 한데 모두 모여, 하룻밤 실킷 놓입니다. 아동 기획단이 장소 섭외, 프로그램, 식사, 숙소 따위의 과업을 나누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방학 활동이면 두어 번 해도 좋겠습니다.

6) 식사파티문화학교

한식 양식 중식... 식사 예절과 요리법을 공부하고 소책자를 만듭니다. 책을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이나 요리사들께 여쭙 봅니다. 잘한다는 데 가서 먹어 봅니다. 활동 발표와 수료회를 겸하여 파티를 엽니다. 둘레 사람을 초대합니다. 직접 요리하고 차리고 시중합니다.

7) 길 위의 학교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에 여쭙고 자료를 구합니다. 책을 찾아봅니다. 둘레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저런 정보 자료를 모아 검토하고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분담합니다. 둘레 사람에게 격려 글 받으며 여행 경비를 마련합니다.

덕망 있는 어른, 문인, 예술가, 이런저런 직업인들을 섭외하고 찾아뵙습니다. 지리와 사람과 문화를 알아 갑니다. 자연을 소박하게 누립니다. 다녀와서 전화와 편지로 감사합니다.

8) 책 한 권씩 들고 가족 이웃과 떠나는 독서 휴가

읽고 싶은 책 한두 권씩 들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갑니다. 산책하고 놀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책 읽고, 둘러앉아 좋은 문장 낭송하고,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 나눕니다.

9) 책 읽는 모임

주제나 책을 지정하여 읽고 와서 나누는 모임, 모여서 읽고 나누는 모임, 낭독하는 모임... 관련 장소나 사람을 찾아 여행하기도 합니다.

10) 독서캠프

몇 가지 주제나 책을 정하여 각자 책을 읽고 와서 주제별 또는 책별로 모둠을 지어 나눕니다.

살아 있는 책, 사람을 읽습니다.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한 후 짝을 정하여 상대 이야기를 읽고 자기 이야기를 읽어 줍니다. 각자 1년이나 몇 년 후 또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고 싶은 자기 책을 기획하고 꾸며 봅니다. 그때가 되어 출판했다고 가정하고 가상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11) 저자와의 대화

저자를 선정합니다. 그 분의 책들을 읽습니다. 책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이나 놀이 따위의 활동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동식물이나 물건 정보를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쭙 봅니다.

저자를 섭외합니다. 책을 들고 마중 나갑니다. 잘 듣고 잘 묻습니다. 소박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모금함을 만들어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냅니다. 와 닿은 점, 재미있거나 유익했던 점, 배운 점, 고마운 점을 나눕니다. 엽서나 편지에 써서 드립니다. 배웁니다.

12) 동요 대회

가족 친구 이웃 어울려 동요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을 정자나 숲이나 공원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달빛 별빛 아래, 피리 하모니카 불고 기타 바이올린 켜며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른 아이 동요 모임에서 기획 준비 진행하는 동요 대회, 동네 사람들이 소박하게 상품을 내놓고 등수 구분 없이 고루 나눕니다. 먹을 것 조금씩 가져와서 나눕니다. 동요 부르는 사람들은 순후할 겁니다.

13) 문장 낭송 대회, 동화 구연 대회

시 수필 실록 소설 동화 기행문 일기 수기 칼럼... 주제 또는 재료를 지정하거나 각자 선택하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출연자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들으며 맞장구치고 추임새 넣고 느낌 생각 나눕니다.

웅기종기 모여 앉아 듣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평상이나 난롯가에 둘러앉으면 절로 이야기꽃이 핍니다. 백과사전 국어사전 도감 지도 따위의 관련 문헌을 찾아보거나 토론 연극 실습 여행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글 읽는 동네, 동화 익는 마을...

14) 요리

만두 쿠키 케이크 샌드위치 군고구마, 삼계탕 비빔밥 김밥 죽 수제비 냉면 라면 떡볶이 국수 화채, 온갖 간식, 온갖 떡, 유자차 매실차 생강차 모과차 효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나눕니다.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 매운탕 끓이고 돌 달구어 고기 구워 먹습니다. 어디 가마솥 하나 걸면 정겨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5) 벼룩시장, 알뜰시장

자료를 찾아봅니다. 여러 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에게 배웁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섭외합니다.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동네잔치처럼 진행합니다. 뒷정리와 감사 인사 잘합니다.

16) 일상생활기술학교

취사 세탁 청소 설거지 바느질 못질 톱질, 아기 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화초 가꾸기, 텃밭 농사, 얼룩 지우기, 끈이나 줄을 묶는 요령, 만들기 고치기... 생활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쭙어 봅니다. 이집 저집에서 각자 또는 여럿이 함께 배우고 실습합니다. 이렇게 찾고 배운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잘 정리해서 나눕니다.

17) 마을 극장, 우리 집 극장

마을의 너른 마당이나 정자나 강당에서, 이웃집 거실에서, 가족 친구 이웃 어울려 영화 봅니다. 영화, 초대장 포스터, 스크린, 장비, 장소, 돗자리, 간식... 아동과 지역사회가 의논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18) 클래식 활동, 인문학 공부

문헌을 찾아봅니다. 클래식 좋아하거나 클래식 활동을 하시는 분, 좋은 음향기기 가진 분, 알아보고 섭외하고 찾아뵙습니다. 한 학기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활동합니다. 함께 감상하고 그 분의 클래식 음악과 추억과 삶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사 철학 문학 공부도 이렇게 합니다.

19) 생활체육, 보드게임

놀고자 한다면 배드민턴 탁구 볼링 같은 생활체육과 윗놀이 바둑 오목 장기 고누 오델로 체스 같은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어른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20) 개별 상담, 일대일 데이트

상담 공간을 꾸미고 그 아동을 위한 특별한 요리나 간식을 준비합니다. 활동 기록과 장점과 고마운 일을 정리합니다. 칭찬 감사와 장점 가능성 희망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21) 문화 관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공연·전시장에 갑니다. 표는 각자 사거나 돈을

모아 공동구매합니다. 이웃이 표 값을 내 주거나 보태 주기도 합니다. 각자 또는 여럿이 함께 간식을 준비합니다. 이집 저집 차를 함께 타고 갑니다. 삼삼오오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합니다. 각자 표를 내고 자유롭게 관람합니다.

22) 소풍, 나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갑니다. 집마다 도시락과 간식, 돛자리 따위를 준비합니다. 이웃이 좀 더 싸 오기도 합니다. 멀리 갈 때는 차비를 걷어 전세버스를 빌리기도 합니다.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이웃이 보태 주기도 합니다. 가서 삼삼오오 자유롭게 누립니다. 도시락·간식을 펼쳐 놓으면 잔치 같습니다. 서로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 웃음꽃 피어납니다.

23) 크리스마스

모여서 카드를 만듭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하 카드를 씁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소박하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쌀을 모아 떡해서 성탄 축하 선물로 삼기도 합니다.

루돌프 옷과 뿔, 천사 옷을 만듭니다. 산타복은 구입하거나 만듭니다. 유모차와 개? 썰매? 선물 수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고 어른들께 여쭙어서 장식 소품 만드는 법, 종이접기나 풍선아트 따위로 장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집을 장식합니다. 동네 가게 같은 곳에 두루 다니며 캐럴을 틀고 성탄 장식을 하게 부탁하거나 함께합니다.

동네마다 몇 명씩 짝지어 산타 루돌프 천사가 되어 자기 집 친구 집 동네 어르신 댁을 돌며 캐럴 부르고 안아 드리고 카드와 선물을 드립니다. 길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며 안아 드립니다. 참조 : 2023년 [철암](#) 사례

24) 송구영신

12월 31일 낮에 어른들과 만두소를 만들고 저녁에 모여 만두를 빚고 찌고 나눠 먹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드리거나 둘러 앉아 실리 평가 감사 평가! 아름다운 추억, 고마운 일, 잘한 일을 나눕니다. 서로

안아 주며 잘했다 고맙다 인사합니다.

구역을 나누고 몇 명씩 짝지어 마을 인사 다닙니다. 다녀와서 새해 바람을 나눕니다. 서로 안아 주며 축복해 줍니다.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합니다. 다음 송구영신 행사 때 꺼내어 읽고 나눕니다.

제야의 타종식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일출을 보러 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와 함께 떡국을 먹습니다.

25) 마을 세배

어른들께 여쭙고 책을 보고 세배 풍속을 공부합니다. 의논하여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인사드릴 어른들을 섭외합니다. 어른들은 덕담을 생각하고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한복 입고 동네 골목 노인정 이 집 저집 세배하러 다닙니다. 안아 드리고 안아 주며 서로 축복합니다.

26) 정월 대보름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고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이집 저집 이웃 가족 친구와 부럼을 깨 먹습니다. 오곡밥 짓기, 나물밥 얻어먹기... 달맛이 줄다리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같은 전통 놀이와 이런저런 새로운 놀이로 남녀노소 어울려 놀입니다.

27) 생활복지운동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골목에서 숲에서 흙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 아동 기획단이 놀 곳을 확보합니다. 놀잇감을 찾아보거나 만듭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궁리하고 의논합니다. 동네 어른들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3. 학습지도

1) 경쟁을 돕는 일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학습지도의 목적이 성적 향상에 있다면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동 학습 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다른 아동은 어찌할까요?

사회사업은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돕는 일입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2) 학습지도도 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아동을 만나고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날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학습은 아동의 실제 생활 과업입니다. 이리므로 학습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하되,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사회사업가답게 합니다.

예컨대, 동네에서 학년 구분 없이 몇 명씩 짝지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공부하게 도왔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각각 자기 필요와 수준에 맞게 학습 계획을 세워 준비했고 형 동생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니 선생님이 가르쳐 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간식을 주시기도 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했고 둘레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학습이라는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정겨운 사람살이가 생동했습니다.

가르쳐 줄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습지도할 수밖에 없고 형 동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렇게 도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4. 문제를 따돌리기

왕따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벽이 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산만하여 학습이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이 암담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담 치료 프로그램 따위로 건드리면 자칫 자존심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로 보거나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꺼렸습니다.

적극적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변화와 선행에도 잘했다 고맙다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 참여 성취하는 경험, 함께 배우고 누리고 성장하는 경험,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경험, 인정 존중받는 경험, 칭찬 감사 격려받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이는 문제를 희석시켜 버릴 만한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들과의 관계, 마을 어른들과의 관계를 살렸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막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왕따 문제 도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친구 가족과 알게 되니 친구를 괴롭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 나쁜 짓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나은 재미와 감동과 행복을 맛보니 남을 괴롭히거나 흠치는 것이 시시해졌을 겁니다.

산만하던 아이가 절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의논하니 조심하려 했을 겁니다. 아이의 강점 가능성을 찾아 잘할 만한 일 좋은 일로써 부탁하니 활력이 그쪽으로 쓰였을 겁니다.

암담한 가정환경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 자주한 경험, 인격적 경험... 이것이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원문 : 섬 사회사업 게시판 [2704](#)번 글

5. 후원 봉사, 실습

1) 센터 아동들은 너무 자주 특별한 후원 봉사를 받습니다. 흔히 소외된 이웃,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낙인찍혀서 받습니다. 꺼림칙합니다. 구차히 받으려 하지 않을까, 품격을 잃어 가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무디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후원이나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아동들과 의논합니다. 후원 봉사로부터 아동들을 지키는 겁니다.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게 합니다.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게 합니다.

외부 자원이 필요하면 위원회 같은 아동 조직이 찾아 유치하거나 검토하여 받게 합니다. 센터 아동들이 일방적 시혜 대상이 되지 않게, 주인 노릇 잘하게 돕습니다.

2) 단기사회사업 (실습생) 면접

아동 당사자 면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면접위원들이 면접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쭙보고 궁리하고 의논하여 면접을 준비합니다. 미리 지원자 한 명 한 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읽고 밑줄치고 메모하고 질문지를 만듭니다.

면접실과 자료와 대접할 음료를 준비해 놓고, 나가서 마중하고 안내합니다. 지원하고 찾아와 주어 고맙다 인사합니다. 정성껏 대접합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진지하게 면접합니다. 지역사회를 두루 안내하고 아동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알게 돕습니다.

이렇게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일에도, 아동이 주인 노릇 하게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 철암 [사례](#)

시설 사회사업

1. 시설

시설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입니다.

1) 주거 시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을 시설 주택이라고 합니다. 기관이 그 주소지 안팎에서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지원 기관

시설 주택의 입주자를 전담하여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을 시설 기관이라고 합니다.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입주자의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시설 정체성이 이러합니다.

이는 ‘시설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설이 제구실하고 시설 사회사업 제대로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가구

1) 가구는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주택의 생활 단위는 개별 가구입니다. 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한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대규모 아파트도, 기숙사형 생활주택도, 공유주택도,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시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한, 한집 한방에 몇 가구가 들어 살든,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남남이라 각각 다른 가구입니다. 독채를 쓸 형편이 아니어서 방만 따로 쓰거나 그마저 어려우면 방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데 그렇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이러므로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가구로서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독립생활은 따로 하는 생활입니다. 독립생활은 생활의 자치에 달렸습니다. 독립 주거가 아니어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고 자립하지 못해도 독립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우선 집별로 각각 별개의 그룹홈처럼 따로 생활하게 돕고, 그마저 어려우면 먼저 동이나 층별로 각각 별개의 소규모 시설처럼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2) 가구는 주거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방’이나 ‘실’이라고 하기보다 ‘집’이나 ‘호’라고 합니다. 주소는 동 호 수까지 특정하고 각 입주자 개인의 이름으로 칭합니다. 예컨대 철수 씨 손님은 무슨 주택 몇 동 몇 호 철수 씨 집에 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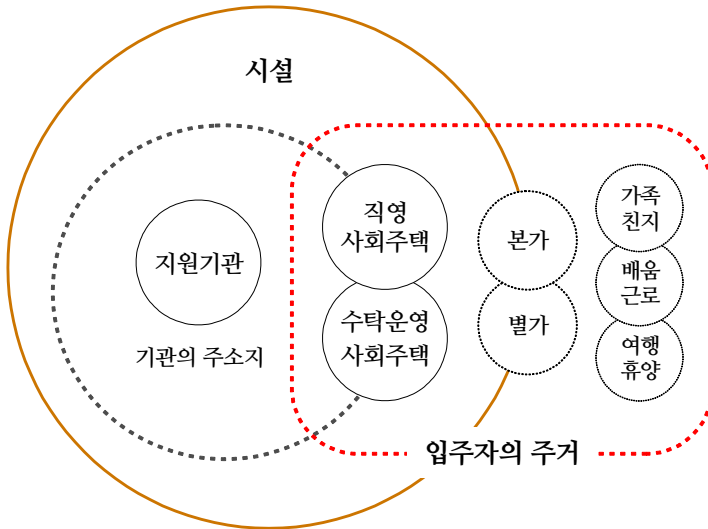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한 입주자가 그곳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게 돕습니다. 주거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시설 관리와 청소, 출입 통제와 보안, 손님 대접 따위의 주인 노릇 잘하게 돕습니다.

3. 주거

1) 입주자의 주거

주거는 일정하게 머물러 살거나 일시 체류하는 곳입니다.

입주자는 주로 시설 주택에 살지만 일반 주택에 살기도 합니다. 주소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며칠 묵기도 합니다.



- ① 시설 주택 : 시설 기관이 직영 또는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주택
- ② 준 시설 주택 : 일반 주택인데 시설 기관이 주거비를 부담하거나 시설 주택에 준하여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주택
- ③ 일반 주택, 기타 : 가족·친지의 집, 단기간 배움이나 근로를 위해 해당 기간에 임시 거주하는 곳, 여행 휴양 따위로 일시 체류하는 곳...

2) 주거 지원

시설 주택 외에, 각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따라 그 욕구와 역량에 맞게 다음과 같이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① 본가살이 : (본가가 시설 기관이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본가에서 살게 돕습니다.

② 별가살이 : 시설 주택이나 본가 외의 일반 주택을 (당사자나 돌래 사람이) 구해 따로 살게 돕습니다.

③ 기타

a. 때때로 가족 친지를 비롯한 돌래 사람의 집에서 하루 이틀이나 며칠 지내게 돕습니다.

b. 배움이나 근로를 위해 해당 기간에 그 학원이나 일자리 근처의 셋방 기숙사 여관 따위에서 임시 거주하게 돕습니다.

c. 단기 본가살이나 별가살이를 지원합니다.

d. 결연가정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더부살이, 여행지나 휴양지에서의 일시 체류, 홈스테이 따위를 추천합니다.

어디에 거주하든 시설 입주자이므로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집 주인이나 가족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입주자는 언제든지 시설 주택으로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를 지원하면 입주자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생활 전반에 질적으로 아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도 달라집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에 관계 소통이 친밀 활발 수월해집니다.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고 돕고 나누는 정겨운 사람살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4. 입주자

입주자는 시설 기관과 계약하고 시설 주택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는데, 계약 조건이 어떠한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든 입주자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야 사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에서는 사회사업으로 돕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는 데’ 사람답다고 할 속성까지 생각합니다. 그 핵심 속성이 이러합니다.

- ① ‘자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 ②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 ③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삶의 의미나 존재 가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 ④ ‘사람 구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이러므로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고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1)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개별적 존재로서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 ① 입주자마다 각각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책임 지원하게 합니다.
- ②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삼갑니다.

2)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이를테면 청소 세탁 취사 요리, 세면 양치 목욕, 미용 화장, 산책 운동, 생일잔치, 쇼핑, 여행, 구직, 취미 활동, 금전이나 물품 관리 같은 일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되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먼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거들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입주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껏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3)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문안 축하 위로 격려 응원 칭찬 감사 선물하게,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쇼핑하고 영화 보게...

이렇게 어울려 살게, 둘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입주자가 찾아다니기 어려우면 그만큼 더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만큼 더 택배 전화 메일 문자라도 주고받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② 지역 주민 시민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이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입주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4)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에 대하여 또는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일을 하게 돕습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형제 노릇, 이모 삼촌 노릇, 어른 노릇, 집주인 노릇, 회사 직원이나 동료 노릇, 회원 노릇, 지역 주민이나 시민 노릇 같은 사람 구실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5. 조력자

근무 시간에 지원해야 하는 입주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케어와 보호, 집단 활동 프로그램 외에 개별 지원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면 직원이 직접 입주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입주자와 함께하게 주선함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입주자의 둘레 사람이나 개인 전담 지원 조직 또는 봉사자가 함께하여 개별 지원하게 주선하되

첫째,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함께하게 합니다.

운동 산책하러 갈 때,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갈 때, 시장 백화점 갈 때, 공연 영화 보러 갈 때, 학원 문화센터 도서관 갈 때, 놀러 갈 때, 구경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지역행사에 참여할 때, 교회 학교 직장 갈 때, 가는 김에 같이 가고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둘째,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합니다.

1) 돌레 사람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당사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① 돌레 사람 찾기

입주할 때,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두루 인사하게 돕습니다. 서로 예를 차려 작별하게 주선합니다. 동행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입주한 후에도 종종 인사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당사자가 자주 다니는 곳에 관련된 사람까지 찾아가 인사합니다.

입주자를 새로 맡게 된 때는 더욱 그리하되,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인사할 사람을 선정하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찾아가는 일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② 돌레 사람 만들기

신앙, 취미활동, 직업이 좋은 구실입니다.

a. 신앙 : 종교 기관에 등록하고 그곳의 집회와 행사, 부서 활동, 구역 활동, 봉사 활동에 함께하게 돕습니다.

b. 취미활동 : 학원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동호회 공방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취미활동하게 돕습니다.

c. 직업 :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게 돕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연수 회식 애경사에 함께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레 사람이 생기고 함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2)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

예컨대 ‘철수회’ 같은 전담 지원 조직을 만듭니다.

① 철수 씨와 의논하고 함께 회원을 모집합니다.

과업별로 또는 요일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집합니다.

먼저 기존 봉사자나 신앙생활 취미활동 직장생활 따위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철수 씨와 잘 맞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부족하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함께할 이웃을 위주로 추가 모집합니다.

지역사회 조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자라고 하지 않고 형님 아우 이모 삼촌 아저씨 선생님 같은 보통의 사회적 관계 호칭을 쓰기로 합니다.

② 철수 씨와 함께 ‘철수 씨 지원 안내서’를 회원에게 설명합니다.

회원은 도우면서 발견하는 철수 씨의 강점, 새로 터득하는 지원 방법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때때로 지원 안내서를 보완합니다.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이 여의치 않으면 우선 호별 또는 동아리별 전담 지원 조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실습생

실습생 한두 명이 특정 입주자를 전담 지원하게 합니다. 그 입주자의 특정 과업 한두 가지를 기획부터 평가까지 집중 지원함이 좋으나 부담스럽다면 과업을 특정하지 않고 생활 전반을 지원하게 합니다.

학기 중 실습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실습을 활용함도 좋겠습니다.

집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별 전담 실습생을 모집하여 그 집 입주자들의 특정 과업 또는 생활 전반을 지원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호별 전담 실습이 여의치 않으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동아리나 소집단 활동 전담 실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4) 자원봉사자

입주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일이 없는 사람을 봉사자로 끌어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음이 좋습니다.

다만, 사정이나 뜻이 있어서 봉사자와 함께한다면 이렇게 해 봅니다.

①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봉사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려 하는지,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당사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봉사자와 연결합니다.

입주자가 주인 노릇 잘하게 합니다. 봉사자에게 다 맡겨 버리지 않고 본인이 할 일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봉사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돕습니다.

② 봉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잘하게 합니다. 입주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지 않게 합니다. 필요하면 입주자와 함께 ‘지원 안내서’의 해당 대목을 설명해 줍니다.

봉사자가 단체로 오더라도 입주자를 모이게 하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입주자 개인이나 집별로 찾아가 활동하게 합니다.

③ 시설 봉사자를 개인별 또는 호별 전담 지원 조직으로 재편합니다.

시설 봉사자로서는 업무가 나지 않지만 호별 봉사단이라면 함께 해 볼 만한 일, 돕거나 나눌 만한 일이 많습니다.

함께 영화 공연 보러 가고, 나들이 가고, 목욕 미용 쇼핑 외식하러 가고,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과일 음료 반찬도 가져오거나 보내 주고, 주방 시설이 있으면 같이 요리도 하고, 생일잔치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입주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할 수 있는 사람, 둘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연

1. 시설 정체성을 뒤집어 보기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1) 지역사회로부터 후원 봉사 따위를 받아서 입주자에게 전해 주는 전달체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달 기능을 아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같은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2) 입주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복지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지 대행업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설 기관이 대행업체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능으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이, 사회사업가가, 이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3) 보호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호 기능을 아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기능으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가가 이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를 두고 보호를 운운하는 것, 보호가 필요한 사안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시설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시설 입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에, 입주자의 인권 실현에, 시설 사회사업에, 이보다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2. 입주자의 집

주택은 각 가구의 집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도 각 가구의 집이고 기숙사형 생활주택이나 공유주택도 각 가구의 집입니다.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사회주택도 각 가구의 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든 각 가구의 집입니다.

시설 주택도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의 집입니다.

그런데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남남이라 개개인이 각각 다른 가구이므로 시설 주택은 곧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처럼 기관이 수탁 운영하는 주택뿐 아니라 직영하는 주택도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지원 기관의 주소지 밖에 있는 주택뿐 아니라 안에 있는 주택도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한집 한방에 여러 명이 사는 주택도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사생활에 얼마쯤 제약이 있을지라도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1) 명실상부하게 입주자의 집이라고 할 만한 요소

① 식생활

취사와 요리, 식사를 집마다 따로 합니다.

조리사들이 집을 분담하여 각 집에서 식생활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영양사도 한두 집이라도 맡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집마다 담당 조리사나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따로 취사 요리 식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조리사나 영양사와 함께 공동 주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동 식당에서 하는 식사는 최소화합니다.

집에 주방 시설이 있으면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식생활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됩니다. 냉장고만 따로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가족 친척 교우 동료 친구 이웃뿐 아니라 호별 전담 지원 조직이나 호별 전담 실습생도 호별 식생활을 돕거나 함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② 신발 벗는 곳

집마다 현관에 신발장을 따로 두고 현관까지 신발을 신고 출입합니다. 지원 기관의 사무실에 갈 때는 물론이고 복도나 계단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택배 기사도 당사자의 집까지 신발을 신고 갑니다.

야간에 직원 한 명이 여러 집을 담당해도 괜찮은 시설 곧 야간근무자를 집마다 따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면, 직원이 많아서 집마다 야간근무자를 배치해도 직원 한 명당 야간근무가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③ 둘레 사람의 왕래, 출입 통제권

입주자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를 비롯한 둘레 사람이 수시로, '직접' 그 집에 왕래합니다.

집의 출입을 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그 집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① 시설의 방실은 입주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주거 공간입니다.

헌법상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입주자의 허락이나 영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집 담당 직원도 노크하고 잠시 기다렸다 (허락받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사합니다.

② 견학이나 실태 조사, 지도 점검 따위로 입주자의 허락 없이 그 방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주거침입 내지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③ 허락 없이 남의 집이나 방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이나 방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라면... 여느 사람에게도 못하지만 이런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일입니다. 직원이 안내해도 그곳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락 하더라도 삼갈 일입니다.

외출했다면, 아무도 없으니 둘러보아도 괜찮을까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그 집이나 방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은 물론이고 기관장도 삼갈 일입니다. 허락받아 들어가더라도 자주 그러면 곤란합니다.

④ 몰려다니며 구경하듯 살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⑤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셔도 안 됩니다.

특히 실태 조사나 지도 점검 따위의 업무로 기관에 방문한 손님, 직원을 찾아온 손님, 이런 외부인이 마당이나 복도를 지나는 동안 입주자의 방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힐끗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시설 용어

1) 거주자?

주거를 지원하면 입주자가 시설 외의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설 거주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이용자?

① 집을 이용하는 사람? 호응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입주한 당사자의 집인데, 숙박 시설의 손님 같아 보입니다.

② 시설의 전용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도움이 좋은데...

시설 이용자라고 하면 시설의 전용 수단을 이용하기 쉽고, 외인들도 으레 그런 줄로 생각하고 일반 수단에서 외면 배제하려 들지 모릅니다.

3) 시설과 재가?

시설 주택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집입니다. 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하든,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든, 입주자의 집입니다. 시설 주택에 있음도 ‘재가’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예컨대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따위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4) 지역사회 주택? 지역사회에서 산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시내에 있든 교외에 있든 그 동네 그 마을 그 지역의 어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공간이나 시간을 단독으로 쓰든 함께 쓰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어떤 유형이든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삽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겁니다.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를 이용하여 생활하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따라서 시설 거주와 지역사회 거주 또는 ‘시설에서 산다.’와 ‘지역사회에서 산다.’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대비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5) 입소 퇴소?

수용소나 보호소 또는 훈련소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주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입소한다 하면 당사자와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따라서 입주, 퇴거라고 하고 이사 온다, 이사 간다고 합니다.

6) 주택 이름과 기관 이름

① 주택 이름

사랑 나눔 은혜 은총 천사... 온정주의 느낌을 줍니다. OO원? 주택 이름으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OO마을, OO동네는 약자 집단 거주지, 계토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이름을 개명하려면 입주자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식 개명이 여의치 않으면 공문서용 이름과 생활용 이름을 달리합니다.

② 기관 이름

OO집, OO빌라... 주택 이름에 가깝습니다. OO원? 직접 서비스 기관의 이름으로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을 개명한다면 기존 이름으로 쌓아 온 사회적 가치도 고려합니다. 공문서용 이름 외에 약칭이나 별명으로 부르기도 좋겠습니다.

시설 기관은 시설 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지원사무소(지원센터)입니다. 그 조직의 장을 원장이라고 함이 타당할까요?

7) 기타 용어

① 집에 다녀오다 → 미성년자라면 몰라도 성인이라면 예컨대 부모님

택, 고향집, 본가나 친정에 다녀온다고 함이 좋겠습니다.

② 시설에 오다, OO월에 오다 → OO빌라 301호, 아들 집, 딸 집, 형님 택, 동생 집, 친구 집, 학생 집, 교인 집에 오다

③ 면회 오다 → 보러 오다, 놀러 오다, 심방 오다…

④ 생활실 → 주택, 가구, 집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⑤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 온정주의 느낌을 줍니다. 사회사업 관계에 어울리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⑥ 원 가정, 원 가족 → 본가, 친정, 부모 형제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⑦ 보호자 : 입주자가 환자나 애 같아 보입니다. 부모나 가족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8) 거주시설?

① ‘거주시설’이라 하니 주거 지원은 그 시설에 한정될 것 같고 ‘거주자’라 하니 그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주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에서 지냅니다. 명절에 고향집 다녀오거나 집단 활동으로 외박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주시설이라 하고 거주자라 하니 이렇게 불박여 살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입주자의 주거를 시설 밖까지 넓혀 다양하게 지원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입주자는 그 시설에 불박여 살 수밖에 없으니 거주시설이 주거를 제한하는 시설 ‘거주제한시설’ 기능을 하게 되고, 거주가 고정되는 시설 ‘거주고정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거주시설, 거주자라는 용어를 꺼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꺼릴 뿐입니다. 주거 시설은 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여부를 가릴 때는 거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시설 주택 곧 시설의 주거 시설뿐 아니라 시설 밖의 다양한 주거 시설을 활용합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항상 시설 주택에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③ 시설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인데,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는 ‘지원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흐립니다.

시설에는 주거 시설 외에 업무 시설도 있고 이용 시설도 있는데, 시설이 다 주거 시설인 것처럼 그냥 ‘거주시설’이라 함도 온당치 않습니다.

9) 보호시설?

① 당사자의 삶이 ‘보호’라는 말에 묻혀 버립니다.

집단 프로그램 따위로 단체 생활 시키며 사고 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려 들기 쉽고,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당연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그저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② 보호한다는 사람이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③ 성인이나 노인에 대하여는 보호한다 함이 꺼림칙합니다.

④ 당사자가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 따위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곳에 있거나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이 떨어지고 구차해집니다.

⑤ 보호가 필요한 사람 사안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사람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하는 것... 당사자에 대한 인식에, 당사자의 삶과 사람살이에, 사회사업과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⑥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은 복지사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주간센터라면 이곳 사회사업가는 낮 동안 당사자 개개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 이런 일에 어울리는 이름은 주간생활 지원센터나 주간활동 지원센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명이 어렵다면 이런 이름은 공문서에만 쓰고 실체는 주간생활 지원센터나 주간활동 지원센터 또는 주간센터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4. 입주 지원

1)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의 작별 인사를 돕습니다.

독립한다고, 이사 간다고, 종종 소식하고 찾아오겠다고, 놀러오라고...
가서 잘 살라고... 석별의 정과 감사 응원 축복을 나누게 돕습니다.

자주 다니거나 이용하던 곳의 사람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생활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리합니다.

2) 동행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아무개 씨를 지원할 사회사업가라고, 아무개 씨가 입주할 주택은 이런 곳이라고, 우리는 입주자를 이런 철학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입주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명함과 자료를 나눕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며 살아온 일, 당사자의 장점 따위를 묻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로 그렇게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기 바란다고, 종종 소식하고 왕래하기 바란다고... 부탁드립니다.

3) 새집 인사와 집들이를 돕습니다.

한집 또는 한 지붕이나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인사하는 일과 집들이를 적절한 때에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돕습니다.

5. 주거 지원의 필요성

1) 관계 지원의 결과

주거 지원은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 관계를 살리는 데 힘쓰게 됩니다. 관계를 살리면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평범하게 한다는 사회사업 철학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여느 사람은 직장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고향집이나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기도 합니다. 연휴 방학 휴가 때 다른 데서 얼마간 지내기도 합니다.

시설 입주자의 주거도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입주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3) 밀집 주거, 고정 주거의 문제

밀집 주거, 고정 주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다툼이나 도전행동 따위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위축 침해되기도 쉽습니다. 분산 주거, 가변 주거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얼마쯤 해소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4)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했는데 어떤 입주자는 사회사업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그저 시설에 붙박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를 지원하지 않음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조 : 웰페어뉴스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

6. 원내 주택과 원외 주택

지원 기관의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을 원내 주택, 밖에 있는 주택을 원외 주택이라고 약칭하고 설명합니다.

1) 원내 주택에는 많은 입주자가 한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산만함 도전행동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주택이 불편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고 원외 주택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력 운용의 융통성도 떨어져 입주자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내에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주간 활동 지원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 주택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거나 이른바 ‘유닛’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도 주간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동이나 유닛별 전담 인력을 특별히 더 지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3) 원내 주택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구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 따로 생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때때로 얼마간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탄살림하게 돕는 겁니다.

4) 원외 주택이 있다면, 직원을 고정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입주자가 거주하게 합니다. 직원의 일부를 원외 주택에 고정 배치하면 원내 주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외 주택 전담 인력을 따로 지원한다면, 직원이 많아서 몇 명쯤 야간근무에서 빠져도 야간근무가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외 주택 전담 직원을 따로 고정 배치해도 괜찮겠습니다.

7. 퇴거 지원

1) 주거 전환 과정

① 지원 기관 확보

(주야, 주간) 전담 지원 기관 또는 일시적 단편적 서비스 제공 기관을 두루 알아보고 당사자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을 선택하게 돕습니다.

② 주거 시설 확보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게 돕습니다.

저축한 돈, 연금이나 수당, 일하여 버는 돈, 둘레 사람이 보탬 수 있는 돈, 자립정착금 따위로써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돕습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 이사, 살림 장만도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하게 돕습니다.

③ 인사

(생활권이 달라지면) 그 동안 서로 함께했거나 돕거나 나누던 사람, 고마운 사람, 정든 사람에게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돕습니다.

2) 주거 전환 이후

① 새 주거가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주택이면 그 기관에 인계합니다. 새 주거가 일반 주택이라도 전담 지원하기로 계약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인계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아온 기록, 당사자의 강점, 어울려 살아온 둘레 사람, 이용해 온 지역사회와 일반 수단과 자원, 지원해 온 원칙과 방법 따위를 당사자와 함께 그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② 전담 지원하기로 계약한 기관이 없으면, 기존 시설 기관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 연장하면서 지원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집에서의 이웃 인사와 집들이까지 도울 수도 있습니다.

8. 입주자 개인별 전담 직원

1) 전담 직원이 없으면 직장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 취미활동, 평생 학습, 여행, 사람 구실 따위의 과업을 누구에게 의논하고 부탁할까요?

2) 당사자나 가족은 어떤 직원이 전담 지원해 주기를 바랄까요?

상위 70%쯤의 직원이 전담하면 어떨까요? 예컨대 입주자가 30명이 고 가구직이 13명이라면 상위 직원 10명이 입주자를 3명씩 전담하는 겁니다.

3) 전담 직원은, 담당 입주자의 둘레 사람을 찾거나 만들고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과 전담 실습생을 확보하는 데 힘씁니다.

근무일에는 담당 입주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다른 입주자에게는 담당 직원이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휴무일의 일은 근무일에 미리 준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당일 근무자에게 부탁해 놓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보조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근무일에 전체 입주자의 일상 케어를 위주로 하고, 특정 입주자의 특정 생활 과업은 전담 직원이 준비하여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9. 지역사회 조사 활용

입주자 개인별 전담 지원 조직의 회원으로 영입할 사람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 봅니다.

1) 지역 주민에게 입주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예시하며 참여 의사를 묻습니다.

시설을 지역사회 여느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으로 소개하고 어느 한 집이나 한두 입주자와 서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만한 일들,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해서 나눌 만한 일들을 나열하고 참여 의사와 연락처를 묻습니다.

2) 특정 개인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라면 이렇게 써 봅니다.

“저는 노을빌라 301호에 사는 000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누군가 함께 하거나 거들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가끔 저랑 함께 하시거나 제가 이런 것을 할 때 시간이 된다면 조금 거들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까요? 연락처를 써 주시거나 아래 (본인, 담당 직원, 기관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10. 프로그램

1) 집단 활동 프로그램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일상화한 시설에서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거나 체념하고 순응 안주하게 되는 건 아닌지, 길들여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보완책으로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라면 동아리나 호 단위의 소집단으로 하게 지원 하되 여의치 않으면 우선 동이나 층별로 나누어서 해 봅니다.

최대한 해당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기획 준비 실행하게 돕습니다. 입주자와 지역사회의 것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이루게 돕습니다.

2) 개인 활동 프로그램?

저마다 자기 희망 계획 필요나 적성 취향에 따라 활동하게 개별 지원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과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하게 돕고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하게 돕습니다. 입주자 전용 또는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하거나 여느 사람과 다르게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체험 활동으로 하기보다 당사자의 실제 생활 과업으로써 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은 행정 서류에 실적으로 꾸며 넣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사회 재활교사나 선임은, 가구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게 주선하고 기록을 모아서 실적으로 꾸미거나 책을 만듭니다.

11. 후원 봉사

1) 후원 봉사는 입주자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불쌍하거나 무능하거나 열등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후원 금품을 전달하는 사진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널리 있다면 그 시설과 시설 입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그런 인상의 입주자가 그렇게 보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2) 후원 봉사 많이 받다 보면, 인간관계가 대상자로서의 관계 이상으로 확장되기 어렵고 사람 구실은 ‘불쌍한 사람 노릇’에 그치기 쉽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와 대등한 관계로 평범하거나 더 나은 구실을 하기 어렵고 하려 들지도 않을 공산이 큼니다. 오히려 자존심 염치 체면 핑개치고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들기 쉽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들도 시설 입주자를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가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 요구 지원하기는커녕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들지 모릅니다.

3) 후원 봉사라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탁하거나 받는다면 이렇게 해 봅니다.

① 입주자에게 필요한 후원 봉사

개인별 또는 호별 후원 봉사로 분산합니다. 되도록 입주자가 찾아 부탁하거나 입주자가 살펴 받게 합니다. 대신하여 부탁하거나 받으려면 입주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기관이나 직원에게 필요한 후원 봉사

기관이 부탁하거나 받되 입주자에게 부작용이 없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되도록 용처와 목표치를 특정하여 모금 모집합니다.

12. 사고 대책

1) 시설은

운영규정과 홈페이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이런저런 일을 최대한 당사자가 하고 돌레 사람과 함께하고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하게 지원한다고 명기합니다.

보호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기 쉬우니 입주자와 합의하여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합니다.)

더하여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났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곧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뒷일 걱정을 덜고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사업가는

① 가족을 비롯한 돌레 사람에게 자주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②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하되, 일지를 충실히 작성합니다.

기록을 가족에게 보여 줍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시설이 사람답게 살게 도우려고 얼마나 힘써 왔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도우려다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얼마쯤 대범해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참조 : 복지인권 '사고 대책'

13. 복장

1) 복장이나 외모는 개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는 마냥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본인의 자아상과 행동,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차려입고 잘 단장하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직원도 입주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언행을 삼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귀하게 보고 품위 있게 대합니다.

2) 직원의 복장 품행 언어도 중요합니다. 입주자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입주자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게 입은 직원이 입주자에게 품위 있게 말하면 입주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대할 때 옷·몸·말 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3)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이나 품행이 입주자의 자아상과 행동, 외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입주자가 하는 구실, 입주자에게 기대하는 구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설 입주자의 낮은 인상을 보정하기 위해서라도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과 외모를 여느 사람보다 더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실의 격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범하게 하자’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더 좋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 또는 긍정적 차별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4. SRV와 노말라이제이션

1) SRV

사회적 구실을 가지 있게 하기입니다. 입주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실을 하게 돕는 겁니다.

2) 노말라이제이션

평범하게 하기입니다. 입주자의 의식주, 복장과 단장, 호칭, 인간관계와 사람 구실, 학교생활과 방학활동, 직장생활과 휴가, 취미활동, 집안 일, 개성 추구 따위를 평범하게 합니다. 입주자가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며 살아가게 돕는 겁니다.

3) SRV와 노말라이제이션의 관계

①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갈수록 더 나은 구실을 하게 합니다. 사회적 구실을 가지 있게 하는 겁니다. 갈수록 덜 예외적이고 더 평범한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사회적 구실을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SRV와 사회적 구실의 노말라이제이션, 그 실체가 같습니다.

다만 노말라이제이션은 사회적 구실만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SRV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일부’입니다.

② 입주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해 인상을 좋게 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인상이 좋고 역량이 있어야 가치 있는 구실을 기대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합니다. 별나게 하면,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인상이 그런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구실을 요구하기는커녕 기대하지도 않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평범하게 합니다. 노말라이제이션으로써 인상을 좋게 하여 가치 있는 사회적 구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말라이제이션은 SRV의 ‘방법’입니다.

15.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고도 지원은 난이도나 체력 수요나 위험도나 시간 수요가 높은 지원입니다. 고도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 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지원
- ② (난이도는 낮아도) 몸으로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체력 수요가 높은 지원
- ③ (난이도나 체력 수요는 낮아도) 지원하다가 다치거나 지치기 쉬운, 위험도나 피로도가 높은 지원
- ④ (어렵거나 힘들거나 위험하지는 않아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하거나 수시로 해야 하는, 시간 수요나 빈도가 높은 지원

몸의 장애가 고도 증증일수록 또는 이른바 도전 행동이 심할수록 이런 지원이 필요할 공산이 큼니다.

이른바 도전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의사 표현입니다.

입주자의 도전 행동은 그 대상이 사회사업가 쪽에 있을 공산이 큼니다.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음 또는 부적절한 지원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사업가로서는 사회사업가 쪽 조건 곧 지원 태도 내용 방법 따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 행동이 사회사업가 쪽 조건에 대한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우선 거기서부터 대응책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1) 사회사업적 대응

① 기본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고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되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더 경청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이나 대화법도 두루 탐색 연구 적용해 봅니다.

② 분산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짜증 소란 탐욕 도벽 배회 발작 자해 폭력 다툼 파손 같은 문제 또는 이른바 도전 행동이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a. 생활 단위를 세분합니다.

동이나 층마다, 집이나 방마다, 각각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b. 주거를 분산합니다.

때때로 다른 곳에서 얼마간 지내다 오게 돕고, 시설 주택 외에 판 집을 구하여 살게 돕고, 본가에서 함께 살거나 각살림하게 돕습니다.

c. 활동을 분산합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활동하게 지원합니다. 저마다 각각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직업 활동, 신앙생활, 취미나 여가 활동, 평생학습 따위의 바깥 활동을 하게 돕습니다.

d. 지원 체계를 개별화합니다.

개인별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개인별 또는 가구별 전담 지원 조직을 만들고, 개인별 또는 동아리나 가구별 전담 실습생을 배치하고, 봉사자를 개인이나 동아리나 가구 전담 봉사자로 활동하게 합니다.

③ 판전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당사자도 힘들고 사회사업가도 지쳐서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잠시라도 문제에서 벗어나 숨 돌리고 즐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판,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배출구, 판전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벌여서 그로써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의 영향을 희석 상쇄하는 겁니다. 기뻐할 일, 웃을 일, 감사할 일을 찾고 만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 기술적 대응

고도 지원이 필요한 문제가 장애나 질병이나 기질 때문이라면 케어나 상담·치료 영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그런 기술을 배우거나 활용하기 전에 자기 정체성과 역량, 시간과 기회비용을 헤아려 봅니다. 직접 배워서 활용할 일인지,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내려놓는 편이 나올지 분별하는 겁니다.

다행히 보통의 사회사업가 누구나 활용할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예컨대 몸이 마비되었거나 경직된 입주자를 케어하는 데는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이 유용하고, 자폐성 행동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 지침 및 치료 **매뉴얼**’이 유용합니다.

다양한 케어 상황을 세분하여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제 행동을 세분하여 치료 방법과 응급 대처 방법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합니다. 책을 다 읽지 않고 해당 대목만 찾아 적용해도 좋습니다.

3) 영성적 대응

①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② 뜻을 더욱 정성스럽게 합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그렇게 살게 도우려는 뜻을 굳세게 합니다. 뜻을 좇아 행하다가 잘못되
어 비난 징계 형벌을 받게 될지라도 다만 뜻을 좇아 행할 따름입니다.

만약,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도 꼭 자기 삶을 살게 하고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해야 할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하고 사람 구
실 사람 노릇 하게 해야 할까?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여 흔들
린다면,

당사자와 가족에게 묻고 의논해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살게 돕고 싶다고, 얼마
간이라도 그렇게 살아 보게 돕고 싶다고… 이야기해 봅니다.

③ 감사하며 감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사회사업가
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감내합니다.

16. 고도 지원을 위한 영성

1) 성서의 영성

①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임을 생각합니다.(약3:9~10)

그의 상전 그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는 우리 주님의 형제이고 그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엡6:9, 시68:5, 마25:40)

그 사람에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습니다.(갈4:14)

② 사람답게 도우려다 잘못될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롬8:28)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벧전2:19~20)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고 합니다.(약1:2~4)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합니다.(시126:5~6, 갈6:9)

③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합니다.(사53:7)

입을 연다면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엡5:3~4)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시119:75, 시145:17)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살전5:16~18, 엡5:20)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합니다.

④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강권하시기 바랍니다.(고후5:14)

그 일을 그렇게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기 바랍니다.(렘20:8~9)

뜻을 좇아 선을 행하다가 눈총 맞고 혼나고 비난받고 애통하고 눈물 날 때,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뜻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갈4:19, 골1:24)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마5:3~12) 그러므로 입주자를 위해 수고하며 애태우며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⑤ 이런 일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로 물러가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에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히10:23~25)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롬12:2) 믿음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골2:7)

2) 논어의 영성

① 서(恕)

논어의 도는 ‘서’로써 일관합니다.(이인-15, 용야-28, 안연-2)

서는 내 마음으로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려 행함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고자 함같이 남을 사람으로 대접함입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고자 함같이 남도 사람답게 살게 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도 당하게 하지 않음은 소극적 서입니다. 내가 서고자 함같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잘되고자 함같이 남도 잘되게 함은 적극적 서입니다.

사회사업의 도 또한 서로 일관합니다. 내가 사람답게 도움을 받고자 함같이 남도 사람답게 돕되 성의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서비스는 싫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고 선택 통제하고 싶고 제구실 하고 싶습니다. 주인 노릇 하고 싶습니다. 일방적 서비스 대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앞에 약자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사회사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내가 시설에 산다면...

나름대로 내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되고 싶습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시설 입주자를 돕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당사자의 삶이고 사람이기에,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 보게…

② 경(敬)

경은 ‘삼가 다잡음’입니다.(학이-5)

안으로는 마음을 삼가 다잡음이고, 밖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자세를 삼가 다잡음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받들어 대하고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함부로 하지 않음 곧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삼가 다잡으면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불경(不敬)은 ‘함부로 함’입니다. 삼가 다잡지 않으면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일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논어의 경은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성의로써 정심하고 그로써 사람을 받들어 대하고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경은 복지 당사자를 받들어 대함입니다. 당사자가 사람답게 살게 성의정심으로써 걸언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불경은 복지 당사자를 함부로 대함입니다.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에게 걸언하지 않고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경은 돕는 일을 받들어 행함입니다. 사회사업 근본을 좇아 한결같이 정도로 행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의 불경은 돕는 일을 함부로 함입니다. 근본도 없이, 근본을 버리고, 시세나 명리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다.

요컨대 논어의 영성은 자신이 고도 지원이 필요할 때 어찌해 주기를 바램같이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도우려는 성의로써 정심하여 한결같이 받들어 지원하는 겁니다.

17. 시설 사회사업의 발전

1)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짐이 발전입니다.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2) 돌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짐이 발전입니다.

돌레 사람이 늘어나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는 일 또는 서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3) 더 나은 구실, 덜 예외적이고 더 평범하고 더 가치 있는 구실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됨이 발전입니다.

4)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이용하고 갈수록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됨이 발전입니다.

5)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이런저런 과업을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능숙하고 품위 있게 하게 됨이 발전입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생활 과업이 다양하고 발전할 여지가 많습니다.

문헌을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하고 돌레 사람과 전문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회복 개발하고 생동시키고 개선 강화할 강점과 자원도 그러합니다.

이러므로 시설 사회사업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일입니다.

사례관리 사회사업

1. 개념

1) 당사자

사례를 관리하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2) 자원

사례를 관리하는 데 쓸모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쪽 자원도 있고 사회사업가 쪽 자원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자원도 있고 약자 전용 자원도 있습니다.

3) 중개

당사자와 자원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자원을 찾아 활용하게 도울 수도 있고 자원을 찾아서 전해 주거나 당사자를 자원 쪽에 의뢰해 줄 수도 있습니다.

4) 사례

당사자의 어떤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한 가지 복지를 이루는 단일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를 이루는 복합 사례도 있습니다.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 사례도 있고 일시적 노력이나 한두 가지 자원이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사례관리

사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관리하게 도울 수도 있고 사회사업가가 관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6) 사례관리자

사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가 사례관리자에게 도울 수도 있고, 사회사업가가 사례관리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사례관리 사업

사례관리를 돕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중개하는 일입니다.

① 대상의 개별성 :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개별화하여 돕습니다.

② 기간의 지속성 : 상당 기간 (일정 기간, 오랫동안) 돕습니다.

③ 자원의 다양성 : 여러 가지 자원을 중개합니다.

사례관리 사업의 필요조건은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의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을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8) 사례관리 사회사업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사례를 관리하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중개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사례를 관리하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인사와 초기 대화

1) 당사자가 살고 있거나 주로 활동하는 곳에 찾아가 인사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당사자가 제안 또는 동의하는 곳에서 인사합니다.

가능하면 당사자의 둘레 사람에게도 인사하되, 당사자가 섭외하고 안 내하게 합니다.

2) 희망과 강점을 이야기하게, 경험이나 노력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이 어떻게 되기 바라는지, 희망을 구체화하게 하되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관련 있는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용한 강점과 함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활용할 만한 강점과 함께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어려운 처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일단 경청합니다. 문제 이야기를 욕구와 과업 이야기로 재구성합니다. 적당한 때에,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다 싶을 때, 희망과 강점을 이야기하게 화제를 바꿉니다.

3) 기록하려면 방법과 내용 및 활용 계획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당사자가 그 기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보여 줍니다.

4) 조사서나 신청서를 당사자가 직접 쓰게 부탁하고 필요한 만큼 보조합니다. 대신 쓴다면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심부름하는 모양새 이게 합니다. 다 쓴 후에 함께 검토하고 감사합니다.

3. 사례 선정

관리할 사례를 선정하거나 사례들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소극적 사례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는 문제 해결 같은 소극적 복지 욕구가 큼니다. 초기에는 대개 그러합니다.

문제를 다루되, 적극적 사업으로써 또는 적극적 사례를 병행하여 그로써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를 감당 극복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2) 적극적 사례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라고 항상 문제만 다루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급한 문제로 대상자가 되었을지라도 얼마쯤 지나면 그 문제는 얼추 해결되거나 유아무야되고 다른 욕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 복지에 주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 칭찬 감사 존중 받을 일을 사례로 관리하게 돕는 겁니다. 급한 문제와 상관없이 장기간 돕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돌래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일을 사례로 관리하게 도우면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살고 관계가 좋아져서 살아갈 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극적 사례를 주로 관리하더라도 이런 적극적 사례를 병행하여 관리하게 도움이 좋습니다.

어른은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시는 일을 잘 관리하시게 돕습니다. 돌래 사람에게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어떤 것을 이루시거나 해주시거나 베푸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보살펴 주시는 일, 어른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일을 관리하시게 돕는 겁니다.

주 사례가 아니라도 이런 일을 잘 관리하시게 도움이 좋습니다.

4. 사례회의

당사자의 어떤 일로 ‘당사자와 여러 관계자가’ 서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서로 응원 격려 감사하는 회의입니다.

1)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때와 장소를 정하는 일, 함께할 사람을 알아보고 참석을 부탁하는 일, 참석자를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 사례를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일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과정을 세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먼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거들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당사자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문회의는 물론이고 사례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섭외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사자가 알아야 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2)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습니다.

회의를 준비 진행하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돕습니다.

3) 때와 장소

① 때 : 여럿이 의논할 일이 있을 때 합니다. 보통은 그냥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됩니다. 사례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일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② 장소 : 당사자의 곳, 사례와 관계있는 곳, 참석자들이 모이기 좋은 곳,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곳이나 약자 전용 공간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이용합니다.

5. 자원 중개

1) 당사자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묻습니다.

활용한 자원, 활용하고 있는 자원을 평가하고 활용할 자원을 찾아보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2) 당사자 쪽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자원 중개는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일반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약자 전용 자원 중개는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3)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습니다.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먼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거들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4) 감사 잘하게 돕습니다.

자원을 찾아 활용하려면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하는데, 이 일은 감사로써 완성되고 감사로써 발전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도, 도움을 받을 때 감사 잘하고 복지를 이룬 후에 감사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강요로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사자가 성인이면 더욱 조심합니다.

6. 평가

추억 성과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평가를 계획 준비 실행하고 활용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되도록 둘레 사람 및 관계자들과 함께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대상으로 또는 당사자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삼갑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계속 지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갑니다.

- 1) 적극적 복지 욕구의 비중을 높입니다.
- 2) 당사자 쪽 자원, 일반 자원의 비중을 높입니다.
- 3) 당사자가 하는 일이 많아지게,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게 합니다.
- 4)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는 일이 많아지게 합니다.

부연

1. 사례관리 사업의 배경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조차 잘 모르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에는,

1)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 자원은 대개 스스로 찾아 활용했습니다. 둘레 사람이 알아서 제공 또는 주선했어 주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복지기관이나 정부 쪽 자원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상당 기간 집중하여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달라져서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례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례관리 사업 대상 사례의 본질

문제나 욕구의 복잡 다양성을 사례관리 사업의 요건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례관리 사업 대상 사례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복잡 다양해도 한두 가지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관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해도 스스로 찾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 자원의 다양성, 자원 활용의 어려움, 이것이 관리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례 곧 사례관리 사업 대상 사례의 본질입니다.

3. 사례관리 당사자와 사례관리 지원자

사례를 관리하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례관리 당사자’라고 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상자라면 사례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자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례관리를 돕는 사람은 사례관리 지원자, 사례관리 지원 사업 담당자, 사례관리 사회사업가 따위로 칭함이 좋겠습니다.

4. 사례관리 사업의 용어, 쉬운 말 찾기

당사자나 돌레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례니 사례관리니 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봅니다.

1) 사례

당사자의 어떤 일 곧 당사자의 어떤 복지 또는 이런저런 복지들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특정하여 말함이 좋겠습니다.

2) 사례회의

당사자의 ‘그 일’에 관해 도와줄 만한 사람들과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함께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3) 사례관리

당사자의 ‘그 일’이 잘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4) 사례관리 사업, 사례관리 서비스

당사자의 ‘그 일’이 잘되게 전담하여 거들어 주는 일입니다. 전담 지원 서비스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5) 사례관리 사회사업가

당사자의 ‘그 일’이 잘되게 전담하여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전담 지원자, 전담 직원, 담당 복지사 따위로 불러도 좋겠습니다.

5. 사례

1) 관리 대상 사례 곧 ‘사례관리’라는 용어 속의 사례는 당사자의 어떤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로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일시적 노력이나 한두 가지 자원으로 될 일을 ‘관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2) 사례관리 사례는 사례를 관리한 사례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이 사례는 당사자의 일 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일입니다.

3) 사례관리 사업 사례는 사례관리를 도운 사례입니다.

일반 사회사업 사례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한두 가지 자원을 증개하여 도운 일은 일반 사회사업 사례에 가깝습니다.

4) 사례관리 사회사업의 사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사례를 관리하고 더불어 살게 도운 사례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일입니다.

5) 사례관리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일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가리켜 ‘몇 사례’, ‘적정 사례 수’, ‘이런 사례’라고 함이 민망합니다. 몇 명, 적정 인원, 이런 사람이라고 함이 좋겠습니다.

6.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조사

1) 시설 입주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주간센터 회원,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학생, 자활센터 참여자, 정신보건센터 회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 하면 어찌될까요? 자기를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생활을 속속들이 조사당하고 심지어 치부까지 파헤쳐진 대상자와 그의 문제를 알게 된 사회사업가, 이제 서로 어떤 낮으로 대하며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당사자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어찌되며 둘레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될까요?

2) 기관의 기존 대상자라면, 뭘 또 조사해야 할까요? 전에 조사했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묻지 않아도 알 만한데,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특별히 더 조사해야 할까요?

부득이 다시 더 조사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정보를 수집할 때도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3)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일상생활 유지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직업 문제, 생활환경 문제...

이렇게 온갖 문제가 있을 거라는 듯 속속들이 파헤치는 질문, 도와주려고 묻는대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것도 문제인가, 난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이런 것까지 캐묻지? 다 해결해 주려고? 써먹지도 않을 걸 왜 묻는 거야?... 가슴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무례를 경계합니다.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 꼭 없애야만 하는지, 없앨 수 있는지, 문제만 없어지고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히 헤아려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처지 역량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커지고 욕구를 물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물으니 정말 그런 사람 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4) 뭘 원하느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뭘 해 줄 수 있는데?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뺏어야지, 사람 봐 가면서 말해야지, 원하는 걸 묻는다고 진짜 원하는 걸 다 털어놓는단 말입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나 다 토로한단 말입니까?

눈치 없다, 자존심도 없다, 비굴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5) 개인사나 가족사, 어디까지 털어놓지? 뒤탈 없을까?

비밀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록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지 모릅니다.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좋은 일로 묻는 것도 아닌데, 묻는 대로 있는 대로 외인에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다니 얼마나 구차합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사업가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6) 지금 물을 만한 것만 묻고 차차 보완해 갑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헤아려서 물을 만한 때에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라고 다 써넣을 건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 사례에 당사자의 둘레 사람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이야기라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정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는 써도 될지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신중히 헤아려 봅니다.

7. 타 기관이나 제삼자가 대상자를 의뢰할 때

1) 타 기관이나 제삼자가 대상자를 의뢰할 때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알려 주더라도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이름 소속 직책 전화번호와 하는 일을 알려 주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좋을지 물어보게 합니다.

2) 사례관리 당사자의 둘레 사람이,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당사자의 어떤 문제를 기관에 알려 조치를 요구할 때, 담당 사회사업가가 그 문제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될까요?

8.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위주로 선정합니다.

문제만 보고 선정하면 십중팔구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 온 문제, 오래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사업가만 애매히 부담감 무력감에 시달릴 게 뻔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클 겁니다.

그래도 돕기로 한다면, 한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 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돕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사례관리 과정에서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나고 이해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감사 받는 경험이 쌓여,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이야기 들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9. 사례회의

1) 주최 주관

사례와 사례관리는 당사자의 일입니다.

사례회의도 당사자의 일입니다. 당사자가 자기의 어떤 사례에 대해 여러 관계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주관해야 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회의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주관하더라도, 당사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함께 의논하고 당사자를 응원 격려 칭찬 감사하는 겁니다.

당사자 없이,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사례회의를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헛수고가 되기도 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회의 결과를 당사자가 동의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우면 당사자가 저항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내맡겨 버릴 수 있습니다.

2) 사례회의?

보통은 그냥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도우면 되는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두루 알아보고 의논하게 도우면 되는데…

한두 명이나 몇 명씩 따로 만나 그냥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으면, 여럿이 모여 의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느 사람은 여럿이 모여 의논하더라도 사례회의라고 하지는 않는 데… 개인적인 일에 사례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니 무슨 큰일 난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필요하면 사례회의의 실적으로 꾸며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사례회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 사례회의에서 도지곤 하는 고질병

당사자 없이 사회사업가 쪽 사람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악성 복지병입니다.

둘레 사람을 버려두고 직접 도와주거나 후원자 봉사자를 동원하려 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버려두고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찾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해치는 악성 복지병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첫째, 사회사업에 내재하는 위험, 특히 ‘불평등하기 쉬운 관계’를 경계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아래로 대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둘째, 사람다움을 좇아 ‘성의정심’합니다.

사람답게 도우려는 뜻,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도우려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대로 당사자를 세우는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를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들이대기 쉽습니다.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람인 양, 전문가나 시혜자인 양, 행세하기 쉽습니다.

11. 사례관리 사업 수행 기관

직접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면서 사례관리 사업까지 한다면 담당 서비스 또는 그 기관의 자원이나 잘 활용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 작은 기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 학교사회사업기관,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자활센터, 직업재활기관에서 본 사업과 사례관리 사업을 겸하여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서는 대개 본 사업만으로도 벅잡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하면 서 본 사업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설픈게 사례관리 사업까지 직접 하려 들지 말고 본 사업이나 잘할 일입니다.

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더러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도와줄 수 있으나 자주 할 일은 아닙니다. 책무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해야 한다면 그만큼 본 사업을 줄이거나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주자 개별 지원이 곧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자체가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돕는 겁니다. 오히려 시설의 자원을 피하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자원을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주간센터도 시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복지관이라도 정체성과 역량에 맞게 얼마쯤 한계를 둡니다.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를 한정하는 겁니다.

특히 전문적 상담 치료나 정부의 공적 지원이 ‘우선 또는 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추천하고 그쪽 사례관리 사업에 보조하는 수준으로 참여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실습지도

1. 개념

사회사업 실습은 실습생이 사회사업가의 지도를 받아 행하는 단기사회사업이고, 사회사업 실습지도는 사회사업가가 실습생의 단기사회사업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2. 목적 : 사회사업 인재 양성

3. 목표

- 1) 사회사업 원리와 방법을 체득하게 합니다.
- 2) 사회사업하는 의미와 재미를 체감하게 합니다.
- 3) 좋은 사회사업 동료로 얻고 우정과 낭만을 누리게 합니다.

4. 부수 효과

- 1) 사회사업에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인재, 준비된 인재를 기관의 직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2) 지도하는 사회사업가가 성장합니다.
- 3) 사업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평소보다 많은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원, 집중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 4) 지역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런저런 복지 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복지요결 방식으로 단기사회사업을 지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5. 과정

1) 실습생이 수행할 만한 일을 선정합니다.

복지 당사자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봅니다.

실무자들에게 사업을 공모하거나, 개별 접촉하여 단위 사업 한두 가지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구상한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2) 홍보 : 선정한 사업을 실습생 모집 안내문에 예시하고 그 가운데 지망 사업을 택하여 지원하게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나 기관 방문의 날에 사례를 발표하고 방학에 이런 사회사업을 함께 해 보자고 합니다.

3) 지원서 : 지원서를 쓰는 일이 학생에게 유익하도록 지도합니다. 탈락자에게는 정성스럽게 감사 응원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4) 면접 : 당사자가 면접을 준비 진행하게 주선합니다. 지원자가 면접으로 사회사업을 배우고 당사자와 어울리고 지역사회를 누리게 합니다. 면접까지 합격하면 격려 글을 받게 합니다. 탈락자에게는 정성스럽게 감사 응원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5) 연수 : 복지요절을 공부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6) 사업 실행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7) 평가와 수료 : 추억 사례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수료사를 낭독합니다.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8) 보고서 제작 : 기관과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냅니다. 도서등록번호를 받아 인쇄합니다. 두루 나눕니다.

참조 : 지원부터 수료까지 과정 [사례](#) (2022년 광활)

6. 연수

1) 복지요결 공부

실습지도자가 강독하거나 각자 또는 삼삼오오 함께 읽습니다.

두어 명씩 짝지어 또는 4~7명씩 모여서 나눕니다.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면 배움이 알차고 풍성해집니다.

2) 비전 워크숍

① 기관 : 지도자가 (기관의 비전 +) 실습의 주요 목표를 설명합니다.

② 학생 : (졸업 후 사회사업 인생이나 남은 학창시절에 이루고 싶은 꿈 한두 가지 +) 실습 기간의 개인 목표 한두 가지를 발표하되 어떻게 이를 생각인지 구상을 설명하고, 기관과 동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이 알아 주며 응원 축복합니다.

3) 강점 워크숍

① 기관 : 비전을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겠다 싶은 기관의 강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살려 쓰면 좋을지 이야기합니다.

② 학생 : 비전을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겠다 싶은 자기 강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되도록 그 강점을 발휘한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실습에 잘 살려 쓰고 싶은 강점 한두 가지를 골라서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이야기합니다. 그 강점을 잘 살려 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이 맞장구치거나 보충해 주고 잘 살려 쓰도록 응원해 줍니다. 한 명씩 발표를 마칠 때마다 모두 알아 줍니다.

비전과 강점을 나누다 보면 학생이 귀하게 보입니다.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학생도 자신과 동료와 기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4) 운영 워크숍

- ① 전체 일정 및 일일 시간표와 생활계획을 정교하게 구체화합니다. 사회사업, 학습과 기록, 놀이와 여행을 고루 배치합니다. 첫 주는 인사와 사업 준비로 바쁘니 학습과 놀이를 최소한으로 합니다. 교육도 당면 과업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모두 둘째 주 이후로 미룹니다.
- ② 과업별 담당자를 정합니다. 운동, 노래, 여행, 회계, 식사, 청소, 기록 같은 과업별로 담당자를 정하는 겁니다.

5) 사업 워크숍

- ① 사전 준비 : 실무자가 관련 문헌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의 기안문서나 기획서나 보고서, 참고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합니다. 학생은 이번에 자신이 맡기로 한 사업 또는 맡아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을 기획합니다. 문헌과 사례를 연구하여 기획안을 만듭니다.
- ② 워크숍 : 사업 실행 계획을 함께 다듬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실행 계획을 마인드맵이나 달력 형식으로 자세히 기술하여 발표합니다. 실무자와 동료들이 잘 반응해 줍니다. 질문하거나 생각을 보태 주고 응원해 줍니다. 동료의 사업 계획을 들으면서 배우고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생각을 다듬거나 구체화합니다.

6) 보고서 워크숍과 가상 출판 기념식

- ① 예비 보고서를 만듭니다. 책 이름과 서문과 목차를 쓰고 본문 적당한 곳에 제목들을 써넣습니다. 문헌과 선행 사례를 두루 찾아서 내용을 얼마쯤 채워 옵니다. 시나리오까지 써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 ② 예비 보고서를 나눕니다. 직접 설명하거나 예비 보고서를 서로 돌려 봅니다. 동료들이 생각이나 정보를 보태 줍니다.
- ③ 가상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실습 마치고 보고서를 출판한 진짜 그 날인 것처럼, 진짜 출판기념회처럼 격식을 차려서, 책을 소개하고 출판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축하합니다. 안아 주며 축복합니다.

사회사업 조사

1. 조사 사회사업

1) 근본과 현실을 고려합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에 부합하게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기관의 정책과 형편 따위의 현실에 맞게 합니다.

조사도 해석도 적용도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의 가치 이상 철학, 처지와 역량, 기관의 정책과 형편에 따라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해석도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 이상 철학, 처지와 역량, 기관의 정책과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가치 이상 철학, 처지와 역량, 기관의 정책과 형편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이러므로 조사의 기획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기관의 정책과 형편 따위의 현실에 맞게 합니다.

2)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조사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게 합니다.

조사의 기획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 활용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돕거나, 함께 합니다. 과정을 세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2. 실용성과 정합성

1) 설문은 조사 목적을 이루는 데 유효하고도 충분하게 구성합니다. 결론이나 제언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문항마다 왜 묻는지, 꼭 물어야 하는지, 응답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용도에 논리적 근거가 될 만한 문항인지, 따져 봅니다.

응답을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문항은 제외합니다. 응답을 해석할 수 없거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문항도 제외합니다.

2) 본문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와 글로 보여 줄 때, 글로써는 도표 안의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설명합니다. 도표 내용을 단순히 풀어 쓴다면 종이와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3)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본론의 정보로써 답합니다. 서론의 문제와 본론의 정보와 결론의 답이 가지런히 들어맞게 합니다. 서로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사회사업 실무에 맞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 합니다. 사회사업가로서 어찌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연

1. 조사 사회사업

1) 사례 1

대학생 20명이 2001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재활원 둘레 1024 가정을 방문하여 336가정에서 면접했거나 응답지를 회수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예시하며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가 아니라 그저 동네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거나 공유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고 이런 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연락처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64.4%가 참여하고 싶다 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8%나 됩니다. 잘 몰라서, 너무 큰 시설이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기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면접 조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로써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의와 잠재력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인정이 오가는 지역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실무에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의 연락처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래전에 대학생들이 한 일이지만 지금 사회사업가의 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참조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5682](#)번 '강점 조사'

2) 사례 2

2001년 설 명절 어느 장애인시설. 그저 여느 사람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집에서 세배도 하고 윗놀이도 하고,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재활원 홍보물과 설 명절 계획서를 들고 동네 5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입주자 한두 명씩 찾아가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여느 가정의 설 풍경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곳입니다. 102호 철수 씨를 초대해 주십시오. 102호 철수 씨네 집에 놀러 오십시오.”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령도 생겼습니다.

다섯 가정이 호응했습니다. 설날에 놀러 오라고. 다섯 가정. 오백 가운데 다섯이니 많은 건 아니지요. 이런 시도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쪽에서도 갈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니 인선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선 후에는 설 인사법과 식사에절을 익히게 해야 했고, 복장도 갖추고 선물도 준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가정이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입주자 다섯 분이 다섯 가정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설을 쇠었습니다. 집에서 세배도 하고 윗놀이도 했습니다.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495가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이라 선뜻 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명절이라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명절 준비로 바빠서 대답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들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은 헛수고였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려는 분이 많았습니다. 후원금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렵פות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가능성을 보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없었더라도, 지역사회에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 자체가 분명 사람들의 복지 본성과 인식을 깨워 지역사회 복지 바탕을 일구어 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십중팔구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소수를 상대하는 일이라 열에 한둘만 호응해도 넘칩니다.

십중팔구에 쏟은 노력이 쓸데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호응하지 않은 사람도 다음에 만날 때는 이야기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 도와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다음에는 어떻게든 도와주려 할지 모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호응하지 않거나 못하는 지금 그 사람의 생각 처지 형편을 헤아려 존중하고 알아줍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다듬습니다. 다음에 다른 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기로 합니다. 때가 있을 겁니다. 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되도록 고향집에, 가족 친척에게, 다녀오게 돕겠습니다. 입주자 개인이나 호별로 설을 어떻게 지낼지 계획하고 준비하게 돕겠습니다.

2. 욕구 조사

1) 사회사업가 쪽에서는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물을 만한 것이나 묻고 당사자 쪽에서도 묻는 사람 봐 가면서 적당히 대답하는데, 당사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나 절실한 욕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2) 문제나 욕구를 물으니 해결해 줄 줄 알고 잘 대답해 주던 사람들이 차츰 사회사업 조사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시큰둥해집니다. 문제나 욕구를 묻는 조사에는 성의 없이 대충 응답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때 성실한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나 욕구, 조사까지 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조사 나름이겠지만, 사회사업하는 데 문제나 욕구 조사가 그렇게 필요한지, 기회비용보다 큰 효용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4) 지금 필요한 강점과 자원, 실무에 바로 활용할 정보를 위주로 조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강점이나 자원이 있는지, 이런저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정보를 어떻게 알려 드리면 좋겠는지 묻는 겁니다.

5) 욕구를 묻는다면

① 무엇에 대한 욕구인지, 대상을 특정 또는 구체화하여 묻습니다.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대응할 만한 것들을 예시합니다.

② 사회사업 근본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예시합니다. 예컨대 목욕 욕구라면, 목욕탕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욕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조하면 좋겠다. 신체 기능에 맞는 목욕 도구와 용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지를 예시합니다.

③ 잘 알고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하되 각 대안을 설명하거나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 시간 장소 비용 교통편 방법 같은 정보를 최대한 예시합니다.

사회사업 기획

1. 기획 원칙

1)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사회사업 근본에 부합하게 합니다. 기관의 정체성이나 정책과 형편에 맞게 합니다.

2) 적극적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3) 당사자와 지역사회 의 것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 외에 따로 돈이 필요한 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신청하고 받고 쓰고 뒤처리하는 일로 심신의 기운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예산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 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목에만 집중 배정합니다.

4)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평안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기획합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준비해 온 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5) 특정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 하여 계획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2. 기획서 쓰는 법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와 사업 내용이 호응하게 합니다.

목표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응하게 짝을 맞추고, 사업 내용은 목표를 이루는 데 유효하고 충분한 행위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2) 목적과 목표가 합리적이게 합니다.

목적은 목표들을 종합하면 이룰 수 있을 만한 수준이게 합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하게 구색을 맞춥니다. 그럴 수 없으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목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이 사업은 특정 목표에 한정하여 추진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3) 목적이나 목표를 하나씩 나누어 씁니다. ‘~하고, ~하고, ~한다.’, ‘~하며 ~한다.’ 이렇게 병기하지 않고 하나씩 나누어 씁니다.

4) 목적에는 목적만, 목표에는 목표만 씁니다.

목적에 ‘~을 통해, ~함으로써’를 쓰지 않습니다. ~는 목표나 정책에 씁니다.

목표에 ‘~을 위해’나 ‘~을 통해, ~함으로써’를 쓰지 않습니다. ‘~을 위해’의 ~는 목적에, ‘~을 통해, ~함으로써’의 ~는 사업 내용에 씁니다.

5) 위계를 맞춥니다. 같은 단계에 나열하는 것은 동급의 상호배타적 항목이게 합니다. 목표보다 목적이 상급입니다.

6) 표현 형식을 통일합니다.

① 타동사형 : ~을 제고한다. ~을 경감한다. ~을 강화한다.

② 명사형 : ~ 제고 ~ 경감 ~ 강화

③ 자동사형 : ~이 높아진다. ~이 줄어든다. ~이 강화한다.

부연

1. 기획서 항목

1) 필요성, 목적, 목표, 원칙,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예산 계획을 포함합니다. 미래상이나 시나리오, 평가 계획을 넣기도 합니다.

2) 필요성에서는 기존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볼 만한 대책 또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사업 원칙에 밝힙니다.

3) 기대 효과는 목적 목표나 미래상과 중복되니 따로 쓰지 않습니다.

4)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신규 사업이나 외부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 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대개 ‘사업 내용’만 써도 좋습니다.

필요성 목적 목표 원칙은 대개 상위 범주나 기관의 그것들 또는 사회사업 근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서 특별히 따로 또 밝혀야 할 만큼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생략합니다.

2. 기획서 다듬기

1) 목적

본 프로그램은 OO구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자 가정의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상호지지와 개인 양육 능력 지원을 통해 가족의 상실된 역할과 기능을 보완, Empowerment를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가족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 방법 목표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건 빼고 목적만 남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

목적 2 : 가족 기능이 강화된다.

② 타동사형과 자동사형이 섞여 있습니다. 통일해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 개발

목적 2 : 가족 기능 강화

③ 두 목적의 급이 다릅니다. ‘잠재능력 개발’은 ‘기능 강화’를 위한 수단 즉, 하위 목표나 계획에 해당합니다. 하나를 뺍시다.

목적 : 가족 기능 강화

목적에서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라고 밝혔듯이 실제 이 사업에는 조모 대상 계획만 있고 손자녀 대상 계획이 없습니다. ‘가족 기능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고 일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계획을 추가하거나 목적을 줄여야 하는데, 목적을 줄여 봅시다.

목적 : 조모의 손자녀 양육 기능 강화

2) 목표

① 목표 1 :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과 조부모의 자아 효능감을 향상한다.

a. 계획인 ‘~을 통해’는 빼고 목표만 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표 1-1 : 조모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감

목표 1-2 :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b. 여기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목표와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 사이에 위계를 따져 봅시다. 어느 것이 위에 있어야 합니까?

② 목표 2 :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a. 하나씩 나누어 쓰되 명사형으로 통일해 봅시다.

목표 2-1 : 조모의 긍정적 역할 강화

목표 2-2 : 조모 개인의 역량 강화

목표 2-3 : 가정의? 조모의? 생활 만족도 제고

b. 세 가지 목표가 동급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 역할 강화 → 생활 만족도 제고, 이런 순서로 위계가 높아집니다. 더구나 여기 ‘생활 만족도 제고’ 목표는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보다 상급입니다.

목표 1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2를 달성해야 목표 1이 이루어질 텐데, 같은 단계에 나열할 수 있습니까?

③ 목표 3 :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자원망을 활용한다.

목표 1이나 2와는 급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목표라기보다 수단에 가깝습니다. 원칙·방침 편이나 계획 편에 넣는 편이 좋겠습니다.

3. 기획서 예시 : 복지 서비스 정보화 사업

1. 필요성

- 1) 복지 서비스 정보화 수요
- 2) 복지 서비스 정보화 현황
- 3) 기존 사업의 한계

2. 2010년 미래상

3. 4. 6. 목적, 목표, 사업 내용

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		
목표	복지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생산·공급 기반 강화	시민 복지 활동 활성화
계책	- 복지종합상담시스템 구축 - 복지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 자원봉사자 후원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 복지 동아리 지원
대상	복지서비스 수요자	복지서비스 공급자	일반 시민

5. 원칙·방침

기존 사업 한계 극복 방안, 이 사업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7. 관리 운영 방안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원문 : <http://welfare.or.kr> → 복지경영 → '[복지정보화](#)'

2001년 2월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쓰는 법에 맞게 썼는지, 특히 필요성 목적 목표 계책 사이에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 표에 요약한 목적 목표 계책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사회사업 기록

1. 이야기

1)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각 감정 행위와 그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를 씁니다.

2) 사회사업 이야기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이야기를 씁니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방법을 찾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생각 감정 행위와 그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 ‘사회사업’ 이야기를 씁니다.

사회사업 행위는 그 의미를 밝혀 이야기로 서술할 때 비로소 사회사업 기록이 되고, 사회사업 기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유할 때 비로소 사회사업 역사가 됩니다.

2. 책 만들기

1) 기획

기관이나 부서나 사업 단위로 책을 기획합니다. 연말이나 몇 년 뒤에 또는 사업 종료 후에 펴낼 보고서 따위를 구상하는 겁니다.

내용 예 : 서문, 목차, 문헌 연구, 선행 사례, 실천 기록, 평가, 성과와 의미, 배움, 강점, 희망과 구상, 당사자와 둘레 사람의 글, 동료들의 글...

2) 워크숍과 가상 출판 기념식

① 워크숍

표지를 꾸미고 서문과 목차를 쓰고 관련 이론과 사업 구상 같은 내용을 얼마쯤 채웁니다. 이것을 동료들과 나누며 다듬습니다.

② 가상 출판 기념식

출판을 기념하듯, 책을 소개하고 출판 소감을 나눕니다. 축하합니다.

3) 내용 채우기

관련 문헌, 선행 사례를 살피고 관련 교육이나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꾸준히 보태고 다듬어 갑니다.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 조합 가공하여 적용하거나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꾸준히 발전시켜 갑니다.

실천 과정과 성과와 의미를 기록합니다. 꾸준히 다듬어 갑니다.

이렇게 연구 적용 성찰하며 그 지식 경험 생각을 기록해 갑니다.

4) 인쇄, 출판

원고를 완성하면 기관과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고 인쇄소나 출판사에 보냅니다. 종이책을 만들지 않고 파일로 공유해도 좋습니다.

부연

1. 게시판에 기록하기

1) 일지

제목에 ‘당사자 이름 + 과업 + 일련번호 + 당일 기록의 주제’, 또는 ‘사업명 + 일련번호 + 당일 기록의 주제’, 이렇게 씁니다.

본문에는 처음이나 끝에 관련 홈페이지를 링크합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본문 끝에 직접 관련 일지들의 링크 목록을 만듭니다.

2) 홈페이지

지원 과업 또는 사업별로 홈페이지 성격의 글에 그 일의 개요를 정리하고 관련 일지들의 링크 목록을 누적해 갑니다.

2. 사회사업 기록의 활용

1) 평가할 때나 종결할 때, 그밖에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보여 줍니다.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참조 : 구슬 카페 글쓰기 [165](#)번 글

2) 제3자에게 공유 보고 발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사회사업 평가

1. 정합성 평가

1) 사회사업 근본, 기관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사회사업 실체가 여기에 부합해야 사회사업 바르게 한다, 바르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는 바 사회사업 근본과 기관의 정책에 비추어 바르게 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좋아하고 남들이 칭찬한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2) 목적 목표 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밝힌 목적 목표 원칙이 그러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실무를 평가하는 효용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정합성의 증거

사회사업 정합성의 증거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그래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기록이 있어야 바르게 잘했는지 평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회

사전에 평가회를 설명하고 주제마다 몇 낱말이라도 써 오게 부탁드립니다. 참조 : 시골사회사업 게시판 [1353](#)번 글

1) 추억

우리 기관 우리 부서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며 즐거웠던 일, 그리워지는 그 우애와 낭만을 추억합니다. 이곳에서 누린 아름다운 풍경 정취를 회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겹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잘 즐기고 누렸다고, 추억 한두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전 직원 앞에서 부서별로 발표한다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발표하고 동료들이 맞장구치거나 보태 줍니다.

2) 사례

자기 사업에서 잘된 사례를 한 가지씩 나눕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식, 기록, 사진이나 영상, 보고서, 참고 문헌, 공부 노트 같은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보여 줍니다.

동료들은 잘 듣고 적극 반응해 줍니다. 그 일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작은 성과라도 민감하게 알아줍니다. 그 꿈과 열정, 노력 수고, 성장 발전을 알아줍니다. 그 일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발표자를 안아 주며 칭찬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참~ 귀하다고, 나도 그렇게 해 보고 싶다고...

3) 배움

보았거나 들었거나 체험하여 얻은 지식 기술 지혜, 발전 숙련 심화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배움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실제로 적용하여 체득한 것, 자기 이야기가 있는 배움을 위주로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4) 강점

잘 발휘되었거나 새로 발견한 자신의 강점 가능성 한두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동료와 기관과 복지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강점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5) 희망

추억 사례 배움 강점을 살려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평가회에서 새롭게 그려지거나 다듬어지는 희망 구상도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이 안아 주며 응원 축복합니다.

6) 감사

서로 고마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동료의 관심 배려 친절 수고 희생 섬김 도움 나눔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겁니다. 고마운 일을 구체적인 이야기로써 표현함이 좋습니다. 꾸민 말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평가회 끝 순서로는 수필 한 편씩 나누면 좋습니다.

그간의 일들과 소회를 이야기하는 수필, 어떻게 배우고 누리고 성장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수필 한 편씩 써서 낭독합니다. 몇 명만 낭독해도 좋습니다.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직원에게, 추억과 감사 응원 축복의 정을 담아 이야기 편지를 써서 읽어 주고 안아 주면 더욱 좋습니다.

추억 사례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다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만 나누어도 좋습니다.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나눕니다.

인원이 많거나 전 직원이 긴 시간 함께하기 어려우면, 먼저 조별로 나눕니다.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체 직원 앞에서 발표합니다.

법인 산하 기관들의 합동 평가회나 소규모 기관들의 합동 평가회라면, 강점과 감사는 기관별로 나누고 사례와 배움은 다 같이 나눕니다.

평가회는 ‘잔치’입니다.

평가회를 이렇게 하면 평안하고 재미있습니다.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사랑과 감동이 넘칩니다.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깊어집니다.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의욕과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과 동료와 기관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평가회는 ‘지침’입니다.

다음 사업을 하는 동안, 다음 6개월이나 1년 동안, 좋은 추억거리와 사례와 배움을 만들어 갑니다. 강점과 희망을 찾는 데 힘씁니다. 동료의 도움에 민감하게 되고 자신도 동료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렇게 다음 평가회에서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부연

1. ‘바르게 하다’와 ‘잘하다’

1) 바르게 하다.

규정이나 지침 또는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따위의 근본이나 기관의 정체성 강령 미션 비전 따위의 정책에 부합하게 하는 겁니다. 계획서에 밝힌 목적 목표 원칙에 부합하게 하는 겁니다.

2) 잘하다

사전에서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라고 풀이합니다.

사회사업 잘한다 함은, 바르게 하는 것을 전제로 그로써 좋고 훌륭한 모습 또는 그런 성과를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3) 사회사업 근본을 좇아 행할 때,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행할 때, 사회사업 바르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람 사는 것 같게 될 때,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될 때, 사회사업 잘한다,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최고의 평가는 ‘아~ 사람 사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2. 수치 평가

1)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목표 수치의 근거를 밝히기 어렵고 달성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쉽지 않아 이현령비현령 꼴 되기 십상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면 잘했다고 할까요?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고 할까요? 괜히 초과 달성해서 평지풍파 일으킨다고 할까요?

2) 사전 사후 비교 평가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만한 시간 예산 인력 들여서 이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았냐고 할까요,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할까요?

이 사업 덕에 좋아졌다고 할 수는 있을까요? 다른 변수는 없었을까요? 같은 시간 예산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방식이든 대개 사후에 좋아졌다고 하니,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별 뜻이 없습니다.

3) 당사자에 대한 수치 평가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사회사업가가 기획 설계 조사 분석하는 수치 평가가 특히 꺼림칙합니다. 민망합니다. 평가의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까지 당사자가 함께하게 하면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

3. 당사자와 함께 하는 평가회

1)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나 행사, 사례관리 사업의 평가회도 실리 평가로 ‘추억 성과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당사자 조직이 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평가회를 계획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아동 청소년 계절학교 수료회, 교육 문화 프로그램 수료회, 노인대학 수료회, 어르신 자서전 출판 기념회, 동아리 활동 발표회 따위를 이렇게 합니다. 몽글하면서도 흥겹고 정겨운 잔치가 되곤 합니다. 먹을 것을 함께 만들거나 조금씩 가져와서 나누면 더욱 그러합니다.

2) 교육을 마치고 하는 평가도 실리 평가로 합니다. 교육이나 강사를 평가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배움을 갈무리하고 나눕니다.

① 두어 명씩 짝지어 또는 4~7명씩 모여서 나눕니다.

② 배운 것을 한두 가지 고르고, 동료들과 나눌 때 실마리로 삼을 만한 낱말을 한두 개씩 씁니다. 시간이 있으면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③ 배운 것을 설명하거나 해당 내용을 찾아 낭독합니다. 그 대목에서 일어난 생각, 관련 있는 경험이나 지식, 성찰과 적용 따위를 나눕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도록 내실 있게 나눕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과 다른든 같은 자기 배움을 나누는 겁니다.

동료가 말할 때 잘 듣고 잘 반응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배움이 뚜렷해지거나 깊어지고 생각과 표현이 다듬어지곤 합니다.

4. 평가회 준비 : 신년 연수

1) 비전 워크숍

① 기관의 비전

사회사업, 학습과 기록, 우애와 낭만을 위한 기관의 구상을 나눕니다.

② 팀의 비전

사회사업, 학습과 기록, 우애와 낭만을 위한 팀의 구상을 나눕니다.

③ 직원의 비전

사회사업, 학습과 기록, 우애와 낭만을 위한 개인의 구상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루어 갈 생각인지, 기관과 동료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이 안아 주며 응원 축복합니다.

2) 보고서 워크숍

① 연말에 내놓을 보고서를 기획합니다.

보고서 이름과 서문과 목차를 씁니다. 관련 이론과 선행 사례를 찾아 얼마쯤 정리해 넣습니다.

② 이렇게 만든 예비 보고서를 동료들과 나눕니다.

각자 자기 보고서를 설명하거나 서로 돌려 봅니다. 동료들이 정보나 생각을 보태 줍니다.

③ 연말까지 꾸준히 내용을 채우고 다듬어 갑니다. 연말 평가회에서 사례를 나눌 때 제본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 평가회가 풍성할 겁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감동 감사가 넘칠 겁니다. 눈물 나게 행복할 겁니다.

5.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

평가회에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을 다루면 기운이 빠지거나 분위기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대안이 없거나 새로운 게 없다면,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실익이 없다면, 아끼는 마음 ‘사랑’이 아니면,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잘되지 않은 점은 대개 담당자 스스로 압니다. 이미 받은 지적 책망 비판이나 충고 조언 따위가 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하는 내부 평가회에서는 비판이나 충고 조언 따위를 삼갑니다. 그런 건 기획할 때나 실행할 때 따로 만나서 함이 좋습니다.

평가회에서는 비판이나 충고 조언 따위의 충동을 꼭 누르고, 칭찬 감사 응원 축복으로 화답함이 좋습니다. 배우고 다듬고 성장하는 데 이려는 편이 더 유익합니다. 동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6. 사업별 평가 워크숍

사업을 세분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담당자의 발제

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잘 발휘되었거나 발견한 자기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기관과 동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까지 나누면 더 좋습니다.

②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강점을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2) 동료 슈퍼비전

① 발제를 듣고 알아주거나 세워 줄 점, 칭찬 감사할 점을 찾아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경험 지식 정보, 발전케 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②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낱말 한두 개로 적어 봅니다. 그 낱말을 실마리로 삼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점이 좋아 보인다, 이걸 이런 의미가 있다, 이 강점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떤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③ 사람이 많으면 먼저 조별로 나누는 후에 전체 앞에서 발표합니다.

매주 또는 매월 한 번,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 봅니다.

적용

사회사업에 관한 한 어느 설이든 교조처럼 따를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유하며 스스로 마땅히 여기는 바를 좇아 행하되 사람 사안 상황에 맞게 변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느니만 못할 수 있습니다.

부연

1. 때

때를 기다립니다.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시도합니다.

천천히 은근히 바꾸어도 변화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 갑자기 드러나게 바꾸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두르거나 강요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역사와 문화와 형편을 살피고 자신과 동료들의 처지와 역량을 헤아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아깁니다.

자신이 해 온 일이든 동료가 하는 일이든 비판을 삼갑니다. 한다면 먼저 성과와 의미를 찾아 긍정 존중하고 대안을 밝혀 신중히 합니다.

대안으로 좋은 사례나 구체적 계획을 내놓기 전에는 기존 방식을 건드리지 않음이 좋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례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면서 그로써 자연스러운 변화를 도모합니다.

2. 전임자와 후임자

전임자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전임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원칙 방법으로 해 왔는지,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문제나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려 했는지, 어떤 강점 자원 가능성을 보았는지, 후임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잘 묻고 잘 듣습니다.

본인이 새로 구상하는 바에 관해 자문하고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임자가 이룬 성과와 남긴 자산에 대해 감사합니다.

퇴사한 전임자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직책에 갈릴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법이니 뒷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앞사람을 존중 배려합니다. 후임자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전임자를 대접하는 겁니다.

※ 기존 기관이나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1) 법인과 기관의 역사 이념 미션 비전 정관을 살펴봅니다. 법인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1년쯤은 기존 방식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기록을 살펴봅니다.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 보고 싶은지, 잘한 점과 희망 중심으로 잘 묻고 잘 듣습니다.

미흡한 점과 대안이라면, 묻고 의논하거나 함께 공부하면서 직원 스스로 느끼고 찾고 이야기하게 돕습니다. 대안을 그 직원의 생각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3. 어디서부터?

1) 누가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본인으로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도나 조직이 좌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조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자는 제도나 윗사람 탓하지 않고, 기관장은 직원들 탓하지 않고, 부서는 부서원이나 관리자 탓하지 않고, 저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가지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2) 누구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까요?

좋은 이론이라고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동조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이론에 동조하여 해 보겠다는 사람,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곧 의지 열정 능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3) 어느 사업, 어느 대상자부터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부터 적용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사업까지 감당할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여러 대상자 가운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부터 적용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대상자까지 돌아볼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4.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론적 사고

1) 조건부적 사고

윗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규정 때문에, 평가 때문에, 예산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윗사람이 잘 이해해 주고 직원들이 잘 따라 주면, 규정이 바뀌고 평가 제도가 달라지면, 예산과 시간이 넉넉하면... 이런저런 조건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자원, 얻을 수 없는 자원을 공상 합니다.

자기에게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남 탓이나 핑계, 조건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제 두레박줄 짧은 줄은 모르고 우물 깊다 불평합니다.

2) 방법론적 사고

다른 사람이나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찾습니다.

자원이 있으면 선용하고 없으면 변통합니다. 산에 가면 산을 누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누립니다.

강점과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빠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찌해 볼 수 있는 것, 재량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냅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선 자기에게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론적 사고, 이 용어는 1990년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5. 근본과 변통

1) 근본

① 격물

사회사업은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일이라, 사람과 사회의 격 곧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탐구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② 치지

격물하여 알게 된 바가 이리합니다.

a.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다움 곧 인격이고 인간의 격입니다.

b.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다움 곧 사회의 격입니다.

③ 성의

격물치지한 대로 도우려는 뜻 곧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려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④ 정심

마음을 붙들어 마땅히 두어야 할 자리에 두는 겁니다.

a. 격물치지한 대로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성의하면 당사자 위에 마음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려는 마음 자세, 당사자를 세우려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b. 격물치지한 대로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성의하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마음 두게 됩니다. ‘복지사업’의 시세나 명리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세를 견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격물치지한 대로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성의정심하는 이것이 사회사업가가 힘써야 할 근본입니다.

근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격물치지한 대로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성의정심하면,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이 바로 ‘결언’입니다.

결언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곧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의 격 사회의 격을 소중히 여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려는 성의정심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려는 성의정심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결언하게 되는 겁니다.

2) 변통

사회사업은 참으로 복잡다단하고 천차만별합니다. 모든 경우에 한 가지 길만 고집하면 온갖 부작용이 어지러이 일어날 겁니다.

사회사업에 관한 한, 항상 좋기만 하거나 항상 나쁘기만 한 길은 없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거나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없습니다.

때에 알맞게 함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맞게 변통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변통하든 근본은 일정하니 곧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려는 성의정심입니다.

근본이 부실한데 말단이 잘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 없는 변통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변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임무가 중하고 길이 땀니다.

누군가의 복지가 여기에 달렸으니 참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는 일이니 참으로 중하지 않습니까?

가고 또 가도 끝이 없으니 참으로 멀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더욱 근본을 생각합니다. 근본을 좇아 사회사업 바르게 잘하고 싶습니다. 근본으로써 성찰하며 한결같이 정도로 행하고 싶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